

# 2026 러시아 진출전략

진출 환경  
시장 분석  
진출전략



# Contents

---

##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7
가. 정부 현황	07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07
3. 주요 이슈 Pick	12
가. 다자주의 질서 구축과 CIS 역내 질서 변화	12
나. 우호국 중심 교역구조 공고화	13
다. 북극항로·국제남북운송회랑 등 대체 물류노선 개발 가속화	14
라. 러-우 사태 종전 협상 동향	15
마. 지속되는 서방의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16

---

##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22
가. 시장 특징	22
나. 무역	26
다. 산업	32
라. 투자	34
2. 유망 산업	37
가. 한류 연계 산업(화장품·식품·콘텐츠)	37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38
다. 의료·제약	39
라. AI	40
3. 협력 기회	41
가. 통상·G2G	41
나. 공급망(자원개발)	41
다. 프로젝트	42

---

##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44
2. 진출전략	46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52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55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56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7

# I . 진출 환경

- |               |    |
|---------------|----|
| 1. 경제 환경      | 04 |
| 2. 정치(정책) 환경  | 07 |
| 3. 주요 이슈 Pick | 12 |

# I 진출 환경



## 1. 경제 환경

□ (경제 전망)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에도 불구하고 '23~'24년 고성장 지속, 그러나 최근 경기 하락 국면에 진입하며 '25~'26년 성장을 둔화 전망

\* 3.6%('23년) → 4.3%('24년) → 1.0%('25년 전망) → 1.3%('26년 전망)

□ (호재 요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생산 증가세 유지, 對우호국 협력 확대

-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제조업 성장 및 투자 증가세 유지
- BRICS 중심 新통상질서 구축 움직임 가속화, 신흥국과의 양자협력도 강화

□ (부진 요인)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기업투자 둔화, 장기 성장 잠재력 약화

- 제재에 따른 구조적 제약 및 고금리, 인력 부족 등 불안정성 지속,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제 성장 유도 간 균형 잡기가 주요 과제
- 경제구조 전환 방향으로 ① 고임금 기반 노동시장 재편, ② 기술·디지털 경제 실현, ③ 투자 환경 질적 개선, ④ 비에너지 중심 대외무역 재편, ⑤ 방위 산업 효율화 제시

## □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sup>1)</sup>	2026년 <sup>2)</sup>
인구	백만 명	147.8	147.9	147.4	147.0	146.4	146.1	146.1	-
명목 GDP	십억 달러	1,697	1,489	1,776	2,245	2,056	2,178	2,524	2,550
	십억 루블	109,608	107,658	134,728	156,941	176,414	201,152	221,851	236,262
1인당 명목 GDP	달러	11,472	10,081	12,417	15,639	14,054	14,897	17,636	17,539
	루블	741,097	728,860	915,157	1,069,708	1,205,842	1,376,478	1,518,487	1,617,125
실질 성장률	%	2.2	-2.7	5.9	-1.4	4.1	4.3	1.0	1.3
실업률	%	4.6	5.8	4.8	4.0	3.2	2.5	2.3	2.6
소비자물가 상승률	%	3.0	4.9	8.4	11.9	7.4	9.5	6.8	4.0
재정수지(GDP 대비)	%	1.8	-3.8	0.4	-2.1	-1.8	-1.7	-2.6	-1.6
총 수출	억 달러	4,380	3,317	4,933	5,915	4,251	4,339	4,129	4,315
(對韓 수출)	억 달러	145.7	106.3	173.6	148.2	88.9	68.7	-	-
총 수입	억 달러	2,580	2,397	2,961	2,591	2,851	2,830	3,060	3,085
(對韓 수입)	억 달러	77.7	69.0	99.8	63.3	61.3	45.3	-	-
무역수지	억 달러	1,800	920	1,972	3,324	1,400	1,509	1,069	1,230
경상수지	억 달러	657	354	1,250	2,377	494	634	301(1~9월)	-
환율(연평균)	RuB/US\$	64.6	72.3	73.7	68.4	85.8	92.4	86.1	92.2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219.2	58.5	658.8	-130.9	107.1	-0.2	10.2(1H)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319.8	94.8	404.5	-398.0	-100.5	-95.4	124.6(1H)	-

주: 1) 2025년은 추정치, 2) 2026년은 전망치(GDP는 당해 연도 평균 루블/달러 환율 적용)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관세청·중앙은행·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 □ 현지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25년 상반기 실질 GDP는 전년 대비 약 1.2% 성장하였으며 '25년 연간 성장률은 기관별 0.6~1% 예상, '26년에도 저성장 기조 지속 전망

### 주요 기관별 러시아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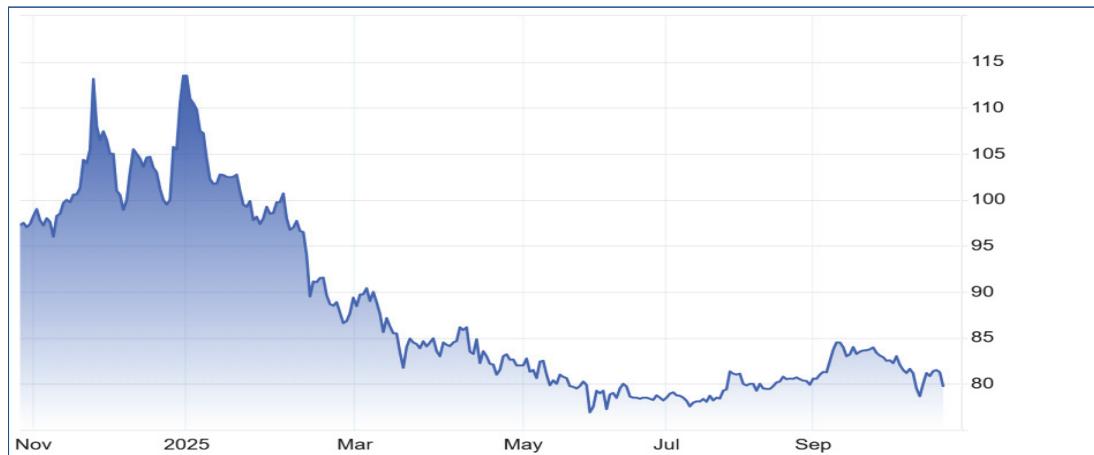
(단위: %)

구분	러 경제개발부	러 중앙은행	IMF	World Bank
2025년	1.0	0.5~1.0	0.6	0.9
2026년	1.3	0.5~1.5	1.0	0.8

## 2026 러시아 진출전략

- (생산) '25년 상반기 산업생산은 제조업 중심 1.4% 증가, 제조업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23년 7.5%, '24년 8.5% 대비 둔화해 '25년 3% 성장 전망
- (소비) 임금 상승 및 경제 회복에 따라 '23년 이후 호조세였으나, '25년 상반기 들어 고금리 장기화, 가계 저축성향 강화, 대출 감소 등으로 증가율 둔화
- (투자) 러-우 사태 발발 이후 외국 기업의 러시아 투자가 급감하며 정부 투자 중심으로 재편, 고정자본투자 '25년 1분기 8.7%, 2분기 1.5% 성장하며 둔화세
- (교역) '25년 교역 감소 및 무역수지 악화, 최대 파트너인 중국과의 교역액이 '25년 상반기 9.1% 감소하며 타 우호국으로의 교역 다변화 추세
- (고용) '25년 7월 기준 실업률 2.2%로 러시아 역대 최저·G20 중 최저, 구조적 인력 부족 및 산업별(첨단·IT 구인난), 지역별(실업률 수도권 ↓, 지방 ↑) 편차 지속
- (금리) 높은 물가상승률('24년 9.5%) 속 경기 과열 방지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25년 들어 통화정책 일부 완화(8.5%'23년 7월) → 21%'24년 10월) → 17%'25년 9월) → 16.5%'25년 10월))
- (환율) '25년 초 러-우 종전 협상 개시, 외화매각의무 폐지 등으로 루블화 절상, 향후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소폭 상승해 '26년 초 1달러당 90루블 도달 전망

〈루블/달러 환율 변화('24년 11월~'25년 10월)〉



자료: Trading Economics('25년 10월 27일)

## 2. 정치(정책) 환경

### 가. 정부 현황

#### □ 푸틴 대통령 장기집권 체제

- (재집권) '20년 개헌으로 '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4년 3월 제8대 대선에서 투표율 74%, 득표율 87%로 푸틴 대통령 재당선(임기 ~'30년)
- (지지도) 러-우 사태 지속으로 인한 피로감, 부분 동원령('22년 9월)에도 불구하고, 최근 2~3년간 푸틴 대통령 지지도는 꾸준히 77~80%의 높은 수준을 유지
  - \* 그러나 '25년 8월 정부 지지율은 50% 전후, 여당 지지율은 35% 전후로 높은 대통령 지지도와 괴리 존재
- (집권 여당) 러시아 집권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은 '21년 9월 총선에서 450석 중 324석을 차지(72%), 압도적인 승리로 푸틴 대통령의 입지 강화
  - \* '24~'25년 지방선거에서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한 대부분 주요 지역에서 여당 후보 승리

###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러시아 정부의 △ 수입 대체화, △ 생산 자동화, △ 폐차세 인상, △ 의무 라벨링 등 주요 산업·경제정책 다수가 자국 산업 육성·보호 및 세수 확대 목적으로 시행

#### □ [정책] 수입 대체화(자국 산업 육성) 및 생산 자동화 적극 추진

- (수입 대체화) 수입의존도가 높은 △ 자동차, △ 전자, △ 조선, △ IT, △ 의료·제약, △ 화학 산업 등 주요 산업 비롯한 639개 분야에서 수입 대체화 정책 추진
  - 자국 기업 육성 및 외국 기업 현지 생산 장려 통해 제조업 경쟁력 확보
  - 철수한 글로벌 제조사 공장 인수, 원부자재 확보 및 노하우 취득하여 생산 재개
- (생산 자동화) 노동력 부족에 대응한 생산성 향상의 핵심으로 생산 자동화 적극 추진, 러 스마트 제조 시장은 AI 발전 전략과 함께 '30년까지 두 배로 성장 전망
- (영향 및 전망) 산업별 현지산 부품 의무 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완제품 수입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 반도체 등 핵심 부품 수급 애로와 △ 생산 소프트웨어 부재, △ 인력 부족으로 수입대체 속도는 미지수

### 산업별 수입 대체화 현황

구 분	주요 정책	현황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철수 제조사 인수 후 공장 재가동, 폐차세 인상</li> <li>수입 부품 관세 및 현지 부품 의무 사용 비율 인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차 생산 증가세이나 수요둔화로 '25년 정체</li> <li>중국차 현지 생산 확대로 중국 부품 수입 증가</li> </ul>
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CB 등 부품 현지 생산설비 정부 주도 투자</li> <li>생산 보조금 지급, 중국 등 우호국 협작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핵심 부품 수급 난항 지속, 국제 결재 애로 및 협력사 제휴 중단 등 악재 속 점진적 대체</li> </ul>
의료·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높은 의약품 원료 의존도(80%) 축소 추진</li> <li>약품 현지 생산라인 정부 주도 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높은 기준금리(17%)로 순수 민간투자 저조</li> <li>비제재 품목으로 독일 등에서 수입 지속</li> </ul>

### □ [정책] 지역 균형 발전 및 인프라 개발

- (인프라) 2036 지역 인프라 개발 계획 승인('25년 9월 8일)
  - 주요 대상은 교통망, 에너지, 교육·의료로, △ 철도 4,500km, △ 도로 2,000km, △ 송전선 800km, △ 광케이블 2만km, △ 의료기관·연구센터 40곳 등 건설 예정
  - 향후 수년 내 60개 공항 현대화, 원자력 발전소 5곳에 총 10기 에너지 블록 도입 예정, 연방-지방 연계 추진을 위해 지역별 자체 인프라 계획 수립 예정
- (균형개발) “러시아는 모스크바와 모스크바가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요 산업은 모스크바에 집중되어 있지만, △ 해양업(북서부), △ 농업(남서부), △ 광업(중부), △ 조선업·수산업(극동) 등 지역별 중점 산업 존재

### 지역균형발전 주요 정책

구 分	현 황
신동방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동러시아 지역을 동북아의 허브로 개발하기 위한 아주 장려 정책 및 국내선 항공 보조금 지급 등</li> <li>중국 접경지역 물류 인프라 개발 투자, 동방경제포럼 지속 개최, 사할린 섬 개발 등</li> </ul>
북극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말반도 등 주요 자원류 생산지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북극-극동러시아 연결 위한 물류·항만 개선</li> <li>노바텍 등 주요 국영 에너지사 제재와 對러시아 수입 제재로 첨단기술 부재, 핵심 부품 수급 애로 발생</li> </ul>
철도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탄 등 자원류의 對중국·인도·이란 수출을 위해 BRICS 협업 속 지방 거점 간 철도 현대화</li> <li>급격하게 늘어나는 러-중 교역 대비 부족한 철도·항만 인프라 상황, 러-중 간 직결 철도 신설</li> </ul>
지방도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30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 추진, 균형발전 위한 지방정부 예산 5,360억 루블(55억 달러) 배정</li> <li>높은 기준금리와 노동력 부족으로 민간투자 저조 속 수도권 집중화 방지 위한 지역별 산업 개발</li> </ul>

## □ [규제] 수입 승용차·중장비 대상 폐차세 인상

- (개요) 폐차세란, 러시아 내 운송수단(승용차·버스·중장비 등 포함) 생산·수입자가 차량 출하·통관 전에 납부하는 일회성 세금으로 '23년 이후 본격 인상
  - '친환경적 폐차 인프라 구축 기금 마련'이 공식 목적이나, 생산 현지화 시 보조금 형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수입차량에 대한 규제로 작동
    - \* 용접, 도장 등 공정별 현지화 정도를 점수로 환산, 1,500점 이상인 경우 보조금 환급 대상('25.8월 기준)
- (계산방식) 기본세율 × 분류별 계수 (계수는 ① 배기량, ② 출력, ③ 연식에 따라 결정)

### 폐차세 계산 예시

차량 유형	기본세율(A)	계수(B)	폐차세액(A×B)	비고
승용차	20,000	40.04	800,800루블	1,000~2,000cc·160~190마력 신차 기준('26년)
버스, 화물차 등 기타 전 차종	150,000	6.6	1,080,000루블	최대중량 5~8톤 화물차 신차 기준('26년)

자료: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1291호(Alta.ru, '25.11.24 조회) 기준 계산

- (인상계획) '25년~'30년까지 매년 10~20%씩 점진적으로 폐차세 인상 예정, 세율 인상과 환급 대상 확대 병행하여 자국 생산 유도
  - 한편, '25.12월부로 계획을 일부 개정하여 △ 승용차 폐차세 산정 기준으로 배기량에 더해 출력(마력)을 추가, △ 개인용 수입 우대세율 적용 대상 축소

### '25년 12월부 폐차세 개정 내용

구 분	기존	개정
분류별 계수 산출 방식	① 배기량 ② 연식	① 배기량 ② 연식 ③ 출력(신규)
개인용 수입차량 우대세율 적용 기준	3,000cc 이하인 경우 폐차세 적용(3,400~5,200루블)	3,000cc 이하더라도 160마력 초과 시 판매용과 동일한 폐차세 적용

자료: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1291호(Alta.ru, '25.11.24 조회)

- (적용예시) 하기 표에 따르면, 배기량 1,598cc·최대출력 180마력인 신차는 '26년 90만 루블(약 1,530만 원) → '30년 132만 루블(약 2,240만 원) 부과 예정
  - \* RUB 1 = 17원 기준

## 1,000~2,000cc 승용차 폐차세 인상 계획(2025.12.01. 개정 기준)

(단위: 루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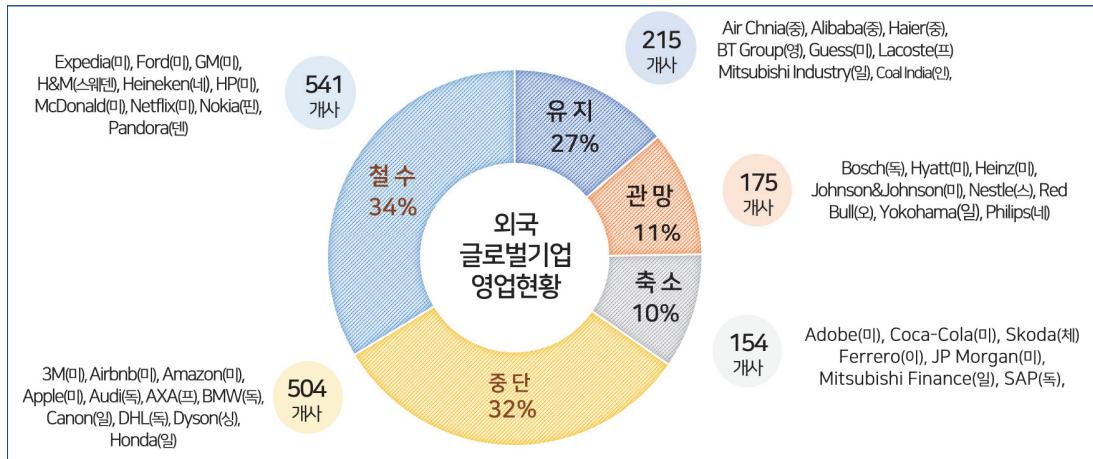
배기량 (cc)	출력 (마력)	2026년		2027년		2030년	
		3년 이하	3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1,000~ 2,000	70 미만	800,800	1,408,800	800,800	1,549,600	1,172,400	2,062,600
	70~100	800,800	1,408,800	800,800	1,549,600	1,172,400	2,062,600
	100~130	800,800	1,408,800	800,800	1,549,600	1,172,400	2,062,600
	130~160	800,800	1,408,800	800,800	1,549,600	1,172,400	2,062,600
	160~190	900,000	1,492,800	990,000	1,642,000	1,317,600	2,185,600
	190~220	952,800	1,584,000	1,048,000	1,742,400	1,395,000	2,319,200
	220~250	1,010,400	1,677,600	1,111,400	1,845,400	1,479,400	2,456,200
	250~280	1,142,400	1,838,400	1,256,600	2,022,200	1,672,600	2,691,600
	280~310	1,291,200	2,011,200	1,420,400	2,212,400	1,890,400	2,944,600
	310~340	1,459,200	2,203,200	1,605,200	2,423,600	2,136,400	3,225,800
	340~370	1,663,200	2,412,000	1,829,600	2,653,200	2,435,000	3,531,400
	370~400	1,896,000	2,640,000	2,085,600	2,904,000	2,776,000	3,865,200
	400~430	2,160,000	2,892,000	2,376,000	3,181,200	3,162,400	4,234,200
	430~460	2,464,800	3,168,000	2,711,200	3,484,800	3,608,800	4,638,200
	460~500	2,808,000	3,468,000	3,088,800	3,814,800	4,111,200	5,077,400
	500마력	3,201,600	3,796,800	3,521,800	4,176,400	4,687,400	5,558,800

주: 배기량 및 차량 유형(M1~4, N1~3, G, O)에 따라 폐차세 상이하여 별도 표 존재

자료: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1291호(Alta.ru, '25.11.24. 조회) 기준 계산

## □ [규제] 러-우 사태 이후 철수한 외국 기업의 복귀 원칙 논의 본격화

- (철수 현황) 글로벌 기업 1,028개사 사업 축소·철수, 국가별 비중은 미국(32%), 영국(10.6%), 독일(7.8%), 일본(4.7%)… 중국(0.6%), 한국(0.5%)
  - \* 한국기업은 유지 1개사(Posco), 중단 5개사(HMM,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대한항공)



자료: 예일대 경영대학원('25년 9월)

- (복귀 동향) '25년 초 종전 협상 개시와 함께 러시아에서 철수한 외국 기업의 복귀(시장 재진입) 원칙 논의 본격화(관련 법안 마련 중), 일부 글로벌 기업의 러시아 내 상표권 재등록
  - 복귀조건 논의 본격화 이후, 러시아 정부는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구체적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서방의 제재 완화가 선결 조건임을 시사('25년 6월)
  - 러시아 정부의 시장 재진입 승인 기본 방향은 자국 산업 육성·보호, 철수방식에 따른 차등(러시아 정부 특별위원회가 복귀 신청기업별 개별 심사 예정)
    - (자국 산업) △ 생산 현지화, △ 러시아 기업과의 합작투자, △ 기술이전 및 R&D KPI 설정 △ 생산 자동화 등 기술격차 해소 위한 투자 진출 유도
    - (철수 방식) 러-우 사태 이후 ‘문을 광 닫고’ 무책임하게 철수한 기업에 대한 정부·업계 비판 다수, 철수 방식에 따라 범주화하여 차등할 가능성 대두
  - 생산 중단(잔류) 기업의 경우, 러시아와의 정치관계 복원, 제재에 따른 부품 조달 곤란 혹은 기업평판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시장 재진입 시기 저울질
- (시사점) 시장경쟁자(Key Players) 공백 속, 시장 재진입 시간차 전략적 활용 가능
  - 유럽·일본 등은 단기간 내 복귀 난항 예상, 한국은 첨단기술 보유한 협력 파트너로서 선제적 복귀 및 신규 진출로 시장 선점 필요

### 3. 주요 이슈 Pick

#### 가. 다자주의 질서 구축과 CIS 역내 질서 변화

##### □ BRICS·상하이협력기구(SCO) 중심 다자협력 강화

- (BRICS)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 협력 강화, 외연 확대 및 자체 플랫폼 구축 움직임
  - 기존 5개국(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공)에 더해 신규 5개국(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UAE, 인도네시아) 정식 회원국으로 합류, 전략파트너국 지위 신설하여,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신흥국 10개국 참여
    - \* 정식 회원국 10개국, 전략파트너국 10개국으로 총 20개국이 'BRICS+' 형성
  - 구매력(PPP) 기준 BRICS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4%로 G7의 29.6%를 상회 ('24년), 자국 화폐 사용 확대 및 자체 결제망·곡물거래소 구축 등 협력 강화
- (상하이협력기구) '01년 러-중 주도로 결성되어 NATO에 대항하는 협력 모델로 부상
  - 약칭 SCO로, '25년 현재 10개 정회원국(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이란, 벨라루스) 활동, 최근 협력 확대 추세

##### □ CIS(독립국가연합) 역내 정치질서 변화

###### ※ CIS 역내 정치질서 변화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CSTO(집단안보조약기구) 등에 적극 참여하며 러시아와 우호 관계 유지, 동시에 미국, EU, 중국 등과 연이어 C5+1 회담 개최하는 등 국익 극대화
- 기타 몰도바는 친EU, 조지아는 친러 행보, 아르메니아는 NATO 가입 추진 등  
이해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러시아와 협조와 갈등 지속



자료: KOTRA 모스크바무역관

러시아	중앙아시아	기타 C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사우스 포용 등 BRICS로 외연 확장 및 서방과 차별화된 다극화 경제 블력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유, 가스, 우라늄 등 자원 보유 및 유럽-아시아 연결의 지정학적 통로로서 전략적 가치 상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국 우선주의 확대, 러시아와 공동 대응보다는 대중국·서방 협력 확대 등 실리 추구</li> </ul>

## 나. 우호국 중심 교역구조 공고화

### □ 공급망 격변에 따른 교역구조 변화

- (우호국 교역 증가) 서방 제재 이후 공급망 격변, '24년 러시아의 교역 상위 5개국은 중국·인도·튀르키예·카자흐스탄·브라질로 모두 러시아의 우호국
  - 또한 러시아의 에너지(HS Code 27) 수출에서 EU의 비중이 '21년 47.3%에서 '24년 9.9%로 급감, 중국·인도·튀르키예 등 우호국 비중은 27.9%에서 76.4%로 급증
    - \* EU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7년 1월 1일부 전면 중단 예정
- (對중국 의존도 심화 및 견제) 러-중 교역액이 3년간 66% 급증하며 의존도 확대
  - 러시아 대외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러-우 사태 발발 이전인 '21년 19%에서 '24년 34%를 기록하며 독보적 최대 교역국 지위 확보
  - 다만, '25년 1~8월 기준 대중국 교역 9.4% 감소, 시장 내 중국 제품 포화 및 폐차세 인상으로 인한 자동차 선구매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분석

### 러-우 사태 전후 러시아의 교역국 변화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1년 러시아의 주요 교역국			2024년 러시아의 주요 교역국		
	국가	교역액 (비중)	주요품목	국가	교역액 (비중)	주요품목
1	중국	1,468 (18.7)	수입 휴대폰·의류 수출 원유·석탄·가스	중국	2,439 (34.0)	수입 자동차·휴대폰 수출 원유·석탄·가스
2	독일	570 (7.2)	수입 의약품·자동차 수출 원유·석탄·백금	인도	709 (9.9)	수입 의약품·알루미늄 수출 원유·석탄·다이아
3	네덜란드	464 (5.9)	수입 의약품·면역용품 수출 원유·가스·구리	튀르키예	526 (7.3)	수입 농수산물·윤활유 수출 원유·곡물·구리
4	미국	360 (4.6)	수입 항공부품·자동차 수출 원유·백금·철강	카자흐스탄	278 (3.9)	수입 우라늄·알루미늄 수출 원유·곡물·전기
5	튀르키예	330 (4.2)	수입 과일·수산물 수출 곡물·석탄·철강	브라질	124 (1.7)	수입 대두·육류·커피 수출 석탄·비료·철강
<b>총 교역액</b>		<b>7,866</b>	<b>총 교역액</b>		<b>7,169</b>	

자료: Global Trade Atlas

## □ CIS 역내 공급망 변화

- (러시아의 우회교역) EAEU 국가를 통한 러시아의 서방 제재품목 일부(자동차부품·전자기기·기계 등) 우회수입 증가, 동시에 같은 경로로 금·다이아몬드 등 서방의 對러시아 수입 금지품목의 우회수출도 증가
- (역허브화) 제조업 및 글로벌 금융 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이탈 및 중앙아시아로의 기지 이전에 따라 중앙아시아 내 투자 진출 증가, 전력·인프라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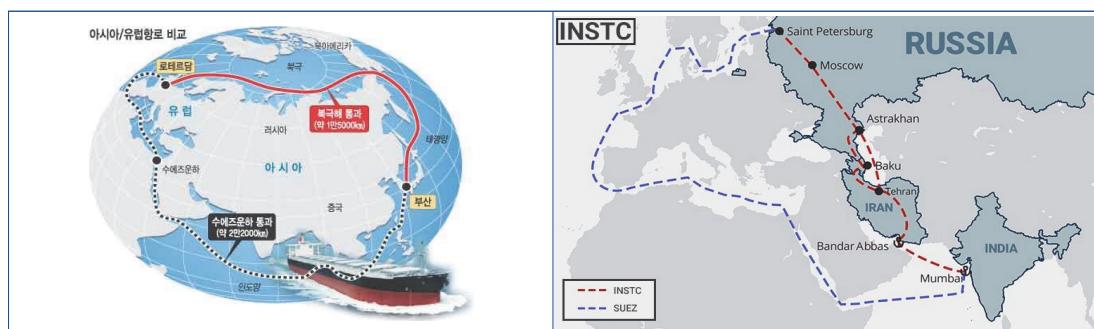
## 다. 북극항로·국제남북운송회랑 등 대체 물류노선 개발 가속화

### □ 북극항로

- (개발정책) 러시아는 '2035 북극항로 개발 계획'에서 세부 과제 명시, 북극항로 내 주요 항만 인프라 개선, 쇄빙선 개발 등 '35년까지 활성화 목표'
  - 152개 세부 과제 중 원자력쇄빙선, 수로측량선 등 40여 개 완료(25년 7월), 다만 '24년 북극항로 물동량은 3,790만 톤(전년비 +4.5%)으로 당초 목표 8,000만 톤의 47.4% 수준
- (전략적 가치) △ 최근 중동·홍해 정세 불안, 수에즈 운하 리스크의 대체 경로, △ 기후변화에 따른 연중 운항 가능성 확대, △ 세계 북극 해저 석유·가스 매장량의 약 60% 보유한 러시아의 전략자원 수출 핵심 통로로 역할 가능
  - 한국은 국정과제로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조성' 계획, 환적 루트(부산-북극) 구축을 통해 북극 항만 개발 및 글로벌 환적 허브 역할 가능
  - 우리 조선업계는 '14~'20년 러시아로부터 쇄빙 LNG·유조선 45척 수주 경험 보유. 제재 해제에 대비해 선박기자재 공급 및 인프라 구축 협력 모색 필요
- (한계) 수에즈 운하를 통한 부산 ↔ 로테르담 노선보다 항해 거리·일수 단축(2만 2,000km → 1만 5,000km, 40일 → 30일) 가능하나, 원자력 쇄빙선 동반 필요, 북극지역 환적 거점 부족 등으로 아직 실질적 수요 국가는 제한적

### □ 국제남북운송회랑(INSTC)

〈북극항로 및 국제남북운송회랑〉



자료: 국내외 언론

- (개요) 러시아-아제르바이잔-이란-인도로 연결되는 종단철도로 TSR·TCR의 대체 노선으로 주목,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호국 중심의 안정적 물류 노선이며 對인도·이란 주요 협력의제로 삼아 '28년까지 완공 목표

## 라. 러-우 사태 종전 협상 동향

### □ 종전 협상 경과 및 주요 내용('25년 10월 기준)

- ('25년 2~3월) 미국이 협상 주도하며 러-우 사태 종식 협의 급물살
  -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 90여 분간 통화로 협상계획 등 논의, 이어 고위급 회담 통해 외교공관 정상화, 경제협력 확대, 종전 논의 지속 등 합의(2월)
  - 이후 추가로 러-우 인프라·에너지 공격 30일간 중단, 포로 교환 등 합의(3월)
- ('25년 5~7월) 3차례 걸친 러시아-우크라이나 고위급 회담 개최
  - 2차 협상 결과로 양국 휴전 조건 교환하였으나 영토·안보 등 핵심 조건에 대한 입장차 유지, 협상 난항인 가운데 트럼프가 러시아 측에 50일 시한 통보 등 압박

### 2차 회담 후 공개된 양국 휴전 조건

구 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안) 점령지 포함 러시아 영토에서 우크라이나군 철수</li> <li>(2안) 병력 이동·동원령 종단, 외국 군사 지원 종단, 대선 일정 확정, 하기 로드맵 합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조건적 육·해·공 전면 휴전을 통한 평화 협상 분위기 조성</li> </ul>
영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러시아 점령지(크림,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의 국제법상 영토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년 이후 러시아 점령지 불인정</li> <li>현재 전선 기준으로 휴전 후 영토 협상 가능</li> </ul>
안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크라이나 군사동맹 불가입, 제3국 군사활동 금지</li> <li>비핵화 및 우크라이나군 병력 상한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크라이나 안보 및 주권 보장</li> <li>군사적 중립 및 병력 제한 강요 불가</li> </ul>
제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對러시아 제재 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对러시아 제재 점진적 해제 가능</li> <li>단, 합의 미이행 시 재부과(Snapback) 조건 포함</li> </ul>
배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호 피해배상 청구권 포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러시아 측 전쟁 책임 명시 및 배상 필요</li> </ul>

자료: 국내외 언론 종합

- ('25년 8월)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및 미국-우크라이나-EU 회담 개최
  - 트럼프-푸틴 정상회담 통해 종전 협상 및 경제 협력 확대 논의
  - 이후 미국-우크라이나-EU 다자간 회동, 미국의 우크라이나 안보 참여 및 러-우 정상회담 추진계획 확인하였으나 영토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EU 간 견해 상이

### 휴전 관련 주요국 입장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EU
현 전선 기준으로 즉각 휴전 후 평화 협상 돌입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측의 영토 제안 수용 시 즉각 휴전 가능	현 전선 기준 휴전에는 동의하나, 영토 문제는 추후 논의

자료: 국내외 언론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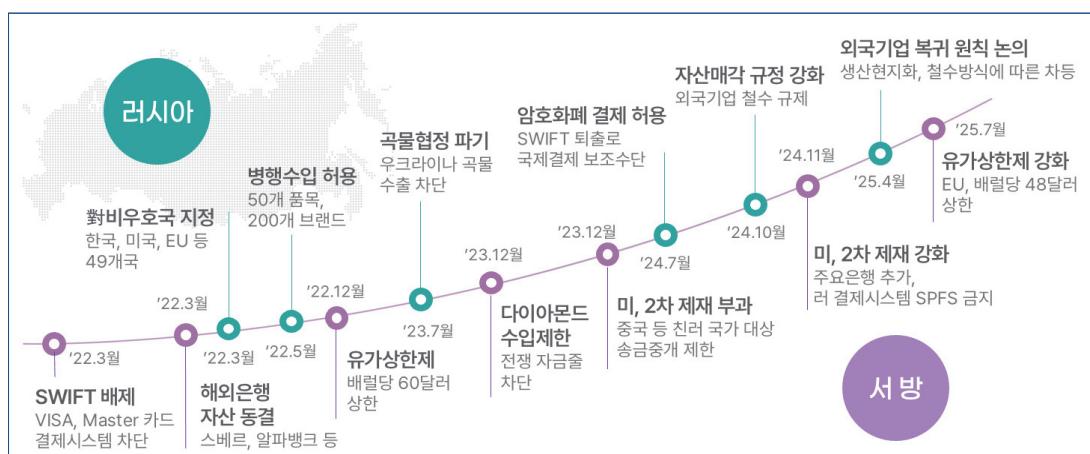
- ('25년10월) 미-러 부다페스트 정상회담 연기와 함께 미국은 신규 **对러시아 제재 부과**
  - 트럼프는 푸틴·젤렌스키와 연달아 접촉 후 미-러 2차 정상회담 추진하였으나 양측 입장차 조율 난항으로 무산, 향후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
  - 회담 연기와 동시에 러시아 석유 기업 대상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对러시아 제재 부과**

## 마. 지속되는 서방의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 □ 현황과 대응

- (서방의 제재) '22년 2월 이후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은 금융·무역·투자·에너지·첨단기술 등 핵심 분야를 포괄하는 대규모 **对러시아 제재**를 단계적으로 부과, 러시아 기업·금융기관·개인에 대한 제재도 지속 확대
- (러시아의 맞대응) '22년 3월부터 러시아는 제재 참여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서방의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시행, 자급자족 및 수입 대체화 가속화로 극복
  - 광범위한 제재는 러시아의 경제·산업 전반에 구조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우호국과의 다자주의 협력 강화, 수입 대체화를 위한 자국 산업 발전 전폭 지원, 대체 물류노선 개발, 자체 국제 결제망 구축 등으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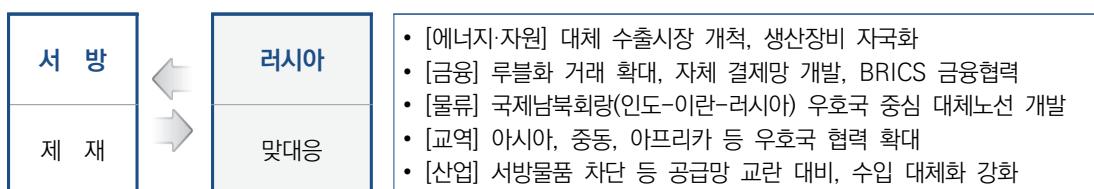
### 〈서방의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자료: KOTRA 모스크바무역관

## □ 분야별 제재 및 대응

- 에너지·자원 분야
  - (주요 제재) 러시아 3대 자원(석유·가스·석탄)에 대한 제재 강화, △ 유가상한제 모니터링 및 2차 제재 강화, △ 주요 가스전·프로젝트 제재 추가, △ 주요 에너지社·선박·항구 제재, △ 러시아산 알루미늄·구리·니켈 수입 금지 등
  - (러시아 대응) 우호국(중국·인도·튀르키예 등)으로 대체 수출, 장기적으로는 △ 원유 시추·생산 장비의 자국화, △ 북극항로·국제남북운송회랑 개발
- 금융 분야
  - (주요 제재) 미국의 2차 제재 강화('24년 11월)로 우호국(중국·UAE·튀르키예 등)을 통한 자금 결제 차단 노력 및 제3국 연루 은행 추가 제재, G7과 EU는 역내 러시아 동결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지원 단행
  - (러시아 대응)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대체 러시아 자체 금융정보전송 시스템(SPFS) 활성화 및 BRICS 중심 新결제망 구축 노력, 다수 중개은행 연결 통한 송금 지속
- 물류 분야
  - (주요 제재) 주요 항구(Vostochny Port)·컨테이너사(Transcontainer)·조선소(Zvezda)·항공사 (Pobeda) 제재, 국경 폐쇄(핀란드)·축소(에스토니아) 등
  - (러시아 대응) 인도·이란·아제르바이잔 협력 강화로 국제남북운송회랑 개발, 중국·UAE 협력 강화로 쇄빙선·운반선 개발 및 북극항로 활성화 노력
- 교역(상품 수출입)
  - (주요 제재) 국가별 뿐러시아 수출통제품목 지속 확대(미국 '24년 4월 등 수시, EU '25년 7월 대러 18차 제재 패키지 등), 이중용도품목 우회수출 차단
  - (러시아 대응) 주요 제재품목들의 우호국 경유 우회수입 노력, 국내 제조 어려운 물품은 병행수입 지속, 자국 기업 현지 생산화(수입 대체화) 대폭 지원



## 참고 1. 한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품목 현황

- (개요)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확대 공조 위해 '22년 이후 4차례 확대
  - HS 코드 6단위 및 품명·기술사양 기준 1,402개 품목 통제 중으로 기계, 중장비, 반도체, 자동차·부품, 철강, 배터리 등 주력 품목 다수
  - 품목 및 사양 확인이 필요한 243개 품목(1~243번)과 HS code만으로 상황허가 대상 품목 판정이 가능한 1,159개 품목(244~1402번)으로 구분

### 對러시아 수출통제품목 확대 경과

구분	1차('22년 3월)	2차('23년 4월)	3차('24년 2월)	4차('24년 9월)
대상품목	반도체, 컴퓨터, 센서, 항공우주 장비 등 57개	전자, 조선 등 798개	철구조물, 건설중장비, 공작기계부품, 절삭기계, 이차전지 등 1,159개	광학기기부품 등 1,402개
적용 기준	전략물자 관련 일반 산업체 승용차	품명·기술사양 HS 코드 6단위 -	품명·기술사양 HS 코드 6단위 미화 5만 불 초과	좌 동 배기량 2,000cc 초과

- (상황허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출 시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 \* 무허가 수출 또는 러시아가 최종 목적지임을 알고 제3국으로 우회수출 시 행정처분 및 사법처벌 대상
  - 對러시아 수출통제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나, 아래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 결정 가능

- 선박 및 항공기 안전
- 민간 원자력 안전
- 인도적 지원(의약품, 식료품 지원에 한정)
- 우리나라 또는 별표 6의 가 지역에 설립된 기업이 소유하거나 지배(전부 또는 공동 지배)하는 회사가 최종 사용자인 경우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라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추가(시행일 기준)되기 전날까지 거래 계약이 체결된 물품 등인 경우
  - 1~57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2년 2월 27일까지 완료된 경우
  - 58~231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3년 4월 27일까지 완료된 경우
  - 232~1,159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4년 2월 23일까지 완료된 경우
  - 1,160~1,402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4년 9월 8일까지 완료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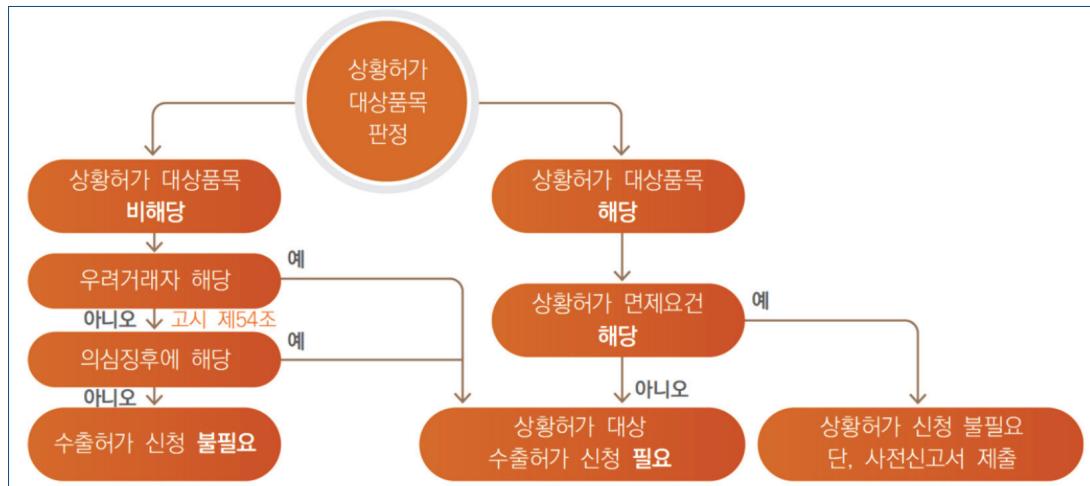
자료: 제36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4('25년 9월 19일 기준)

- (판정 절차) ① HS 코드로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품목은 고시에 명시된 HS 코드를 통해 바로 확인, 다만, HS 코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② 품명·기술사양 기준으로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품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기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통해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 \* ②의 경우 ‘对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HSK 연계표’ 참조
- (상황허가 면제) 아래의 경우 상황허가가 면제되나, 사전에 수출신고서 제출 필요

- 정부 및 국제기구 지원
  - 대한민국 정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국제우주정거장(ISS) 관련 지원에 한정
- 소비자 통신제품 등 거래
  - 해당품목 별도 규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참조
-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 전용 부품·부분품 등 거래
  - 다만, 설치확인서 제출(1회), 반기별 이행점검보고서 제출(연 2회) 등 최종 사용자 및 사용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빙 제출 필요

자료: 제36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4('25년 9월 19일 기준)

### 〈상황 허가 프로세스〉



자료: 무역안보관리원('25년 9월 19일 기준)

## 참고 2. 對러시아 금융 제재에 따른 대금 수취 애로('25년 10월 기준)

### □ 주요 경과

- (러시아 SWIFT 배제) 러시아 주요 은행\*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배제 및 거래 중단 조치로, 수출입 대금 결제, 송금, 환전 등 국제금융 업무에 차질 발생('22.3월, 주요국)  
\* Rossiya, VEB, PSB, VTB, Sovcom, Sberbank, Rosselkhozbank, Moscow Kreditny Bank 등
- (금융제재 확대) 러 주요 은행 대상 거래 금지 등 제재 확대('23년 2월 등, 미국)
- (2차 제재 강화) '세컨더리 보이콧 강화' 발표 이후, 중국·튀르키예·UAE 국적 은행들의 러시아 은행들과의 거래 제한 조치 다수('24년 11월, 미국)  
\* 러시아 에너지 거래에 주로 활용되는 가즈프롬 은행을 비롯한 50여 개 은행 및 주요인사 15명 등 제재 대상에 추가('24년 11월 21일)
- (우호국 중개·수취 거부) 중개 역할을 해왔던 중국·튀르키예·UAE 은행들의 거래 거부로 인하여 위안화의 對한국 송금 중단 등 전체적 송금 여건 악화('24년~)

### □ 러시아 바이어 대응 및 현황

- (루블화 송금) 일부 송금 가능했던 러시아 내 외국계 은행\*들의 신규 계좌개설 중단 및 위안화 중개 거부 사례 급증으로 루블화 송금 사례 증가  
\* 외국계 은행 신규 계좌 개설 전면 중단 : Raiffeisen(오스트리아) ICBC(중국) 등  
\* 신규 계좌 개설 심사 강화 : Unicredit(이탈리아), OTP(헝가리), BoC(중국), CCB(중국) 등
- (비제재 은행 송금) 러시아 내 외국계 은행(비제재 은행)을 통해 달러화·위안화·루블화 송금 시도 중이나, 거래 참여자와 품목이 모두 제재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의심 정황에 해당되는지 등 확인 필요해 송금-수취 지체 애로 발생
- (송금 에이전시 활용) 송금 가능 루트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소재 다국적 물류기업 등이 시장 내 송금(혹은 공급) 대행 서비스를 출시, 별도 계약을 통해 수출대금의 대리 송금을 추진
- (결제 수단 변경) 일부 러시아 기업은 암호화폐로 소액 대금 결제, 러시아는 '24년 8월 암호화폐를 합법적 대외무역 결제 수단으로 허용

##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22
2. 유망 산업	37
3. 협력 기회	41

# II 시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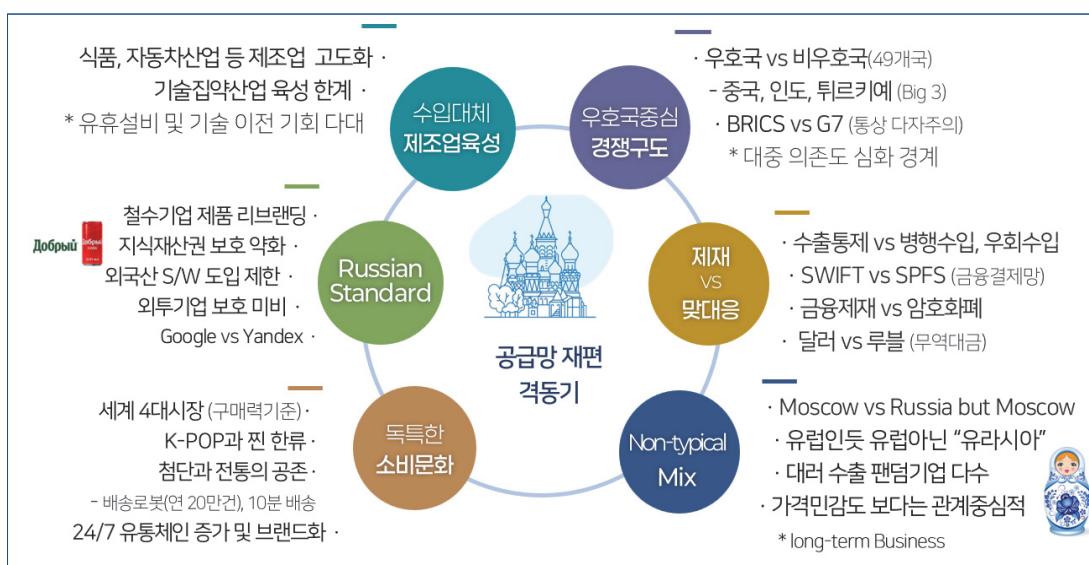


## 1. 시장 현황

### 가. 시장 특징

#### □ 주요 특징 및 전략적 가치

- (환경 변화) ① 공산 자립경제('22~'91년) ▷ ② 구소련 해체 이후 시장경제 전환 및 글로벌화 편승 ('92~'22년) ▷ ③ 러-우 사태로 촉발된 서방의 제재에 맞대응하며 시장·비즈니스 환경 급변('22년~)
- (거대 시장) 러시아는 세계 1위 영토와 구매력 기준 세계 4위 경제 규모, 세계 13위 소비시장을 보유한 국가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창설을 통해 1억 9,000만 인구와 GDP 2조 4,000억 달러의 단일 시장 형성
  - \* 구매력 기준 세계 GDP 비중 : 중국(18.8%), 미국(15%), 인도(7.9%), 러시아(3.6%)('24년 10월, IMF)
  - \* EAEU : '15년 1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으로 창설된 경제연합으로 상호 무관세 교역 및 통합 인증 체계 공유
- (경쟁구도) 글로벌 기업 이탈 이후 자국 브랜드 부상 및 중국, 인도, 튀르키예, 브라질 등 우호국과의 교역이 대폭 증가하며 시장 내 新경쟁구도 형성



자료: KOTRA 모스크바무역관

## □ 소비 성향

- (소비 동향) '25년 상반기 러시아 소매유통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28조 9,000억 루블(약 3,600억 달러)로 완만한 성장세, 고금리·고물가 지속에 따른 내수 둔화로 '23년 8%, '24년 7.2% 대비 성장률은 둔화
  - '23년 이후 가파른 소득 증가로 전반적 수요 증가, 물가 상승으로 가성비를 중시하는 성향과 동시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도 뚜렷
  - 수입대체 정책을 통한 자국산 제품 육성과 동시에, 저가 제품 및 고품질 수입 제품에 대한 수요도 각각 높은 수준으로 유지
  - 의류, 가전, 자동차 등 소비 시장은 중국·튀르키예를 비롯한 우호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기존 서방 제품도 우회·병행수입 등을 통해 공급 지속
- (이커머스 성장) 팬데믹 이후 폭발적 성장,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23년 45%, '24년 36%, '25년 상반기 36% 성장하며 최근에도 높은 성장을 지속
  - '25년 1분기 기준, 러시아 유통시장 내 전자상거래 비중은 18.3%로 전분기 16.2% 대비 상승, 타 주요국(30~50%) 대비 아직 낮은 수준이나 지방 중소도시에서 연 50~80% 성장을 지속되며 성장 동력은 높은 편
  - 전반적으로 e-그로서리(e-grocery)와 배달 서비스도 발달하여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통한 소비 매우 활발, 최대 IT기업 Yandex 배달로봇도 대도시 내 상용화 단계

## 러시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b>WILDBERRIE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 : 의류, 신발, 화장품</li> <li>• '24년 매출액 : 358억 1,446만 달러</li> </ul>	<b>ЯМ Маркет</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 : 가정용품, 식품, 가전제품</li> <li>• '24년 매출액 : 57억 7,454만 달러</li> </ul>
<b>OZON</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 : 가정용품, 가전제품, 화장품</li> <li>• '24년 매출액 : 272억 1,683만 달러</li> </ul>	<b>Мега Маркет</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 : 가정용품, 식품, 가전제품</li> <li>• '24년 매출액 : 36억 9,579만 달러</li> </ul>

자료: 매출액은 '24년 연평균 루블/달러 환율(USD 1 = RUB 92.4) 기준

	
러시아 내 도심형 배송 거점(다크스토어)	Yandex 배달로봇

## □ 주요 인증

- EAC 인증(Eurasian Conformity)
  - EAEU(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단일시장에 적용되는 통합 인증으로 EAEU 기술규정(TR CU)을 통해 세부사항 규정
  -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식품, 화장품, 의약품, 장난감, 포장재 등 다수 품목이 해당되며, 지속적으로 대상 품목 확대 중
  - 품목별 규정에 따라 적합성 선언(Doc) 또는 적합성 인증서(CoC) 발급 필요

### ※ EAC 인증 유형

-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 자율 선언 형태로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안전·위생 위험이 적은 소비재에 주로 적용
-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 안전성·위험도가 높은 산업재나 특수 제품에 주로 적용되며, 비교적 심사·시험 절차가 복잡

- 러시아 자체 인증(기존 EAEU 내 국가별 인증 존재)

- 국가등록증(SGR) : 식음료, 생활화학제품, 일부 건자재 등 위생 관련 제품에 대해 취득 요구, Rospotrebnadzor(소비자 권리 보호 감독청), Roszdravnadzor(보건감독청) 등 러시아 내 품목별 담당 기관 통한 등록 필요
- GOST-R : 과거 러시아 국가 표준 인증으로, 현재는 대부분 EAC로 대체되었으나 일부 자발적 인증 형태로 활용 중

### EAEU·러시아 주요 필수 인증 종류

연번	문서 명칭	발급기관	유효기간	발급기간
1	적합성 인증서 (Certificate of Conformity = CC EAC) (Сертификат соответствия)	각 회원국 내 국가 인증기관	1년, 3년, 5년	3주 이상
2	적합성 선언 증명서 (Declaration of Conformity = DC EAC) (Деклар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ии)	각 회원국 내 국가 인증기관	1년, 3년, 5년	3일 이상
3	국가등록증(SGR)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Rospotrebnadzor (러 소비자 권리 보호 감독청), Roszdravnadzor (러 보건감독청) 등	성분 변경 등 특이 사항 없을 시 유효 기간 없음	3주 이상

자료: 러시아 소재 인증기관 자료 종합

- 의무 라벨링 Chestny Znak(체스니 즈낙)

- (개요) 러시아 정부가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17년 도입한 라벨링 제도로 EAEU 역내에서 전방위적으로 시행 중, 주류·유제품·의약품·화장품·담배 등 소비재를 넘어 전자제품·자동차부품·건축자재 등으로 확대 중(역내산에도 적용)



- (발급 절차) 러시아 내 수입자·제조사가 책임을 지니며, 현지 사업자가 신청하여 데이터 매트릭스 (Data Matrix) 형태의 코드 발급, 생산 공정 또는 현지 통관 전에 부착

#### 체스니 즈낙 라벨링 주요 절차

단계	절차	내용
1	제조사·수입업체 정보 등록	• 전자서명 발급 후 등록 가능
2	제품 정보 등록	• GTIN, 제품명, 원산지, 포장 유형 등 정보 입력
3	코드 신청·발급	• 제품별 코드 수령, 코드당 0.5루블(VAT 별도) 과금
4	코드 인쇄·부착	• 포장지 사전 인쇄, 직접 인쇄, 스티커 부착 중 선택
5	유통 정보 전송	• 출하, 수입, 판매 등 각 단계별 정보 실시간 전송
6	판매 시 출고처리	• 판매 위해 POS 단말기 스캔 시 코드 비활성화

- (부착 방식) 러시아 정부는 포장지 사전 인쇄 방식을 권장하지만, 수입제품의 경우 현지 인프라 제약 등으로 인해 스티커 또는 직접 인쇄 방식이 일반적

연번	방식	내용
1	포장지 사전 인쇄	• 제품 포장지에 코드를 미리 인쇄해 생산라인에 투입
2	현장 직접 인쇄	• 제조공정 중 레이저·잉크젯 프린터로 코드 직접 인쇄
3	스티커 부착	• 출력된 코드를 스티커 라벨 형태로 부착

### ※ 러시아 라벨링 에이전시 D사 인터뷰

- 해외 생산지에서 부착하는 △ 통관 절차 간소화, △ 러시아 도착 즉시 유통 가능 등 장점이 존재하나, 해외 생산라인 설비투자 등 초기 진입장벽이 존재
- 러시아 현지 창고에서 진행하는 방식은 △ 제품 구성 변경이 잦거나, △ 소규모로 납품하거나, △ 복수 브랜드를 취급하는 경우 유리하며, 오류 수정이 용이하나 처리시간·비용 증가 가능
- 초기에는 현지에서 라벨링을 진행해 익숙해진 뒤, 안정화된 후 공정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

## 나. 무역

### □ 수출입 동향

- (수출 규모) '24년 수출은 전년 대비 2.1% 증가하며 소폭 증가, 주요 품목인 원유·석탄·가스의 對EU 수출량을 우호국으로 공급 전환
  - '25년 8월까지의 수출액은 2,2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 유가 하락 및 루블 강세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수익성 감소 영향
- (수입 규모) '24년 수입은 전년 대비 0.8% 감소하며 동일한 수준 유지, 제재 품목은 병행수입·우회수입·자국생산 확대를 통한 대체공급 노력 지속
  - '25년 8월까지의 수입액은 1,1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 물류·결제여건 지속 악화 및 러시아 국내 소비·투자 둔화 영향

### 러시아 역외 수출입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425	△28.1	434	2.1	225	△8.6
수입	285	10.0	283	△0.8	115	△9.4
무역수지	140	△57.9	151	7.8	109.9	△7.9
총 교역	710	△16.5	717	0.9	339.8	△8.9

자료: Global Trade Atlas(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통계에 미포함)

### □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 (수출국) BRICS 등 우호국 중심으로 러시아의 수출시장 다변화, 독일·네덜란드 등 對EU 수출 급감, 對인도·브라질·EAEU 국가 수출 증가
- (수출 품목) 3대 수출 자원(원유·가스·석탄)의 對EU·미국 공급량은 중국·인도·튀르키예로 전환, 비료·곡물 수출 지속

### 러-우 사태 전후 러시아의 수출국 변화

(단위: 억 달러)

구분	2021년 러시아의 주요 수출국			2024년 러시아의 주요 수출국		
	국가	수출액	주요품목	국가	수출액	주요품목
1	중국	667	원유·석탄·가스	중국	1,283	원유·석탄·가스
2	네덜란드	424	원유·가스·구리	인도	660	원유·석탄·다이아
3	독일	296	원유·석탄·백금	튀르키예	440	원유·곡물·구리
4	튀르키예	268	곡물·석탄·철강	카자흐스탄	183	원유·곡물·전기
5	벨라루스	231	원유·자동차·철·금	브라질	110	원유·비료·광물

자료: Global Trade Atlas

### □ 주요 수입국 및 수입 품목

- (수입국) 서방의 對러시아 수출 제재로 독일·미국·한국 등으로부터의 수입 감소, 병행·우회수입이 활발해지며 러시아의 對중국·튀르키예 수입 증가
- (수입 품목) 러시아 내 제조업 기반이 약한 컴퓨터·자동차·스마트폰·의약품 등의 수입 의존도는 여전히 높으나, 러-우 사태 이후 자국화 노력 뚜렷

### 러-우 사태 전후 러시아의 수입국 변화

(단위: 억 달러)

구분	2021년 러시아의 주요 수입국			2024년 러시아의 주요 수입국		
	국가	수입액	주요품목	국가	수입액	주요품목
1	중국	727	컴퓨터·의류·전화기	중국	1,156	자동차·트랙터·스마트폰
2	독일	274	의약품·항공기부품·조리기	카자흐스탄	95	우라늄·알루미늄·철강제품
3	미국	175	자동차·자동차부품·항공기부품	튀르키예	86	농수산물·윤활유·중장비
4	벨라루스	156	자동차·디스플레이·치즈	독일	82	의약품·면역용품·의료기기
5	한국	130	자동차·자동차부품·철구조물	인도	49	의약품·알루미늄

자료: Global Trade Atlas

### □ 對韓 교역 동향

- (교역) 對러시아 수출통제와 금융·물류 등 복합적 요인으로 양국 교역은 러-우 사태 이후 대폭 감소하였으나, 비제재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지속 중
  - 한-러 교역은 '21년까지 상승하였으나 '22년 러-우 사태 발발 이후 지속 감소

## 최근 5개년 한–러 교역액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누계
수출	100	63	61	45	30
(증감률)	(44.6)	(△36.6)	(△3.1)	(△26.2)	(△13.1)
수입	174	148	89	69	51
(증감률)	(63.3)	(△14.6)	(△40.0)	(△22.7)	(△2.9)
교역액	274	211	151	114	81
(증감률)	(56.6)	(△23)	(△28.4)	(△24.1)	(△6.9)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9월 12일)

## • 주요 교역 품목

- (수출) '24년 기준, 제재 대상 품목들은 수출통제 영향으로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화장품(4억 달러), 윤활유(2억 6,000만 달러), 의료기기(1억 6,000만 달러) 등이 주요 품목으로 부상, 한편, '25년 상반기 한국의 러시아 중고차·기타 기계류 수출 급증

## 한국의 러시아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9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총 수출	4,529	△26.2		총 수출	3,017	△13.1
1	승용차	586	△8.6	1	승용차	768	62.2
2	화장품	406	△0.6	2	화장품	336	15.1
3	합성수지	349	16.4	3	합성수지	171	△39.1
4	윤활유	255	△15.0	4	윤활유	145	△29.1
5	자동차 부품	212	△40.8	5	의료용기기	105	0.5
6	의료용기기	160	6.0	6	타이어	101	△12.3
7	기타 플라스틱제품	160	2.8	7	기타 플라스틱제품	95	△20.4
8	타이어	152	44.3	8	자동차 부품	86	△49.1
9	운반하역기계	139	△30.2	9	건설중장비	60	△30.1
10	기타 정밀화학원료	106	108.3	10	김	60	8.1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10월 21일)

- (수입) '24년 러시아 수입은 우리나라의 러시아 제재 동참 및 금융결제 애로로 인해 전년 대비 22.7% 감소한 69억 달러 기록, 석유 수입 중단 이후 최대 수입품목인 석탄 수입이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알루미늄 수입 증가

### 한국의 러시아 10대 수입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9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	6,873	△22.7		총 수입	5,129	△2.9
1	유연탄	2,105	△47.0	1	유연탄	1,507	△6.0
2	천연가스	1,243	17.5	2	알루미늄과 및 스크랩	978	65.0
3	알루미늄과 및 스크랩	863	27.0	3	천연가스	893	△1.2
4	우라늄	650	89.7	4	우라늄	298	△54.1
5	게	386	△15.9	5	게	295	14.0
6	무연탄	179	△60.7	6	무연탄	125	△17.8
7	명태	137	△0.9	7	명태	97	△3.4
8	어란 및 어백	104	△21.7	8	적층목재	84	22.2
9	적층목재	93	111.7	9	어육	68	22.9
10	제재목	90	△1.9	10	어란 및 어백	68	△17.5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10월 21일)

#### • 한국의 러시아 내 수출 시장 점유율

- (한국 수출) 러시아는 한국의 12대 수출국('21년)이었으나 러-우 사태 이후 3년 연속 규모가 위축되었으며 주요 품목도 비제재 분야로 재편
  - \* '21-'24년 사이 한국의 주요 수출국에서 러시아는 12위 → 28위, 총 교역에서도 10위 → 24위로 대폭 하락
- (러시아 수입) 러시아 수입도 위축되었으나, 서방으로부터의 수입이 더욱 크게 감소하며 한국은 제재 이전과 유사하게 러시아의 7대 수입국 지위 유지('24년)
- (인지도) 한류 인기에 따른 소비재 수출 증가, 전반적으로 기술력에 긍정 인식
  - \* 러시아의 한류는 '1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현재 최고 수준에 도달, 한국에 우호적인 소비자 기반 및 산업 구조 형성
  - \* 비제재 품목인 화장품·식품 중심으로 매년 수출 증가세, 타 분야로 확장 추세
  - \* 한국 화장품은 '20년 이후 5년 연속 러시아 수입시장 1위, 식품도 면류, 김, 커피, 소스 등 위주 증가
  - \* 콘텐츠도 러시아 OTT 서비스에서 인기 카테고리로 자리 잡으며 한국제품 마케팅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
  - \* 기계, 의료 등 기술집약적 분야에서도 한국은 기술·브랜드 보유한 파트너로 인식

## □ 러시아 주요 수출 성공 사례

### KOTRA 해외무역관 협업으로 수출 중단 방지, 중대 리스크 해소(자동차부품 진출기업 W, Y사)

- 제품의 비교우위
  - 러-우 사태 이전, 러시아 내 솔라리스 등 한국 차량은 품질과 A/S에 대한 대중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시장 내 매출 1위 기록
- 필수 인증 : EAC 인증(EAEU 공통 인증)
- 성약 소요기간 : 3개월
- 발굴경로 : 주요 생산 부품 상황허가 취득 절차 애로 발생에 따라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으로 지원 요청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자동차 제조기업(W·Y사), 현지 잔류를 위해 지속 생산라인 가동 추진 중 한국에서 지속 부품 반입이 시급한 상황이나 최종 납품처인 ARG(현대 자동차 공장 인수 기업) 지배구조 상 SDN(개인) 위반에 대한 우려로 절차 중단 위기
  - 무역관 주도로 기업 신용DB 및 지배구조 확인서 수령 등 산업부 안보과와 핫라인 지원하여 상황허가 최종 승인 획득
  - AGR 전 협력사 12개사 진출 기업의 중대 리스크 해소 사례('25년 9월)

### 한류가 만들어 낸 관심, 식품조리기계 수출로 직결(라면조리기계 C사)

- 제품의 비교우위
  - 간편한 사용법, 한국에서의 높은 인지도(팝업스토어, 한강 설치 경험), 한류 인기로 최근 라면조리기계 수요 증가
- 필수 인증 : EAC 인증(EAEU 공통 인증)
- 성약 소요기간 : 3개월
- 바이어 발굴경로 : '25년 2월 모스크바 식품 전시회(ProdEXPO) 방문 유치하여 국내 기업과 매칭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해당 바이어는 그동안 자사 주력 품목인 젤리·사탕에 주력해왔으나, 사업 확장을 위해 품목 다변화 고민
  - ProdEXPO 한국관에 방문하여 현장에 전시되어 있던 즉석라면기계를 발견한 바이어는 SNS에서 본 '한강 라면'을 떠올리게 되었고, 무역관으로 온라인 상담 주선 요청
  - 국내 C사는 러-우 사태로 거래를 망설였지만, 바이어사가 한국과 거래 경험이 있다는 점과 러시아 내 한국 음식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한 후 온라인 미팅 성사
  - 바이어는 러시아 지방 도시에 한국식 라면 카페 개업 준비 중이며 '25년 5월 초도 물량 계약
  - 이후 해당 제품에 러시아 대형 유통망이 관심 보이며 판로 확대 중



### 러시아 인증·라벨링 적극 대응해 건강기능식품 수출(건강기능식품 G사)

- 제품의 비교우위
  - 건강기능식품의 카자흐스탄 시장 성공 진출 경험 有, 취득이 까다로운 러시아 국가인증 보유
- 필수 인증 : EAC 인증, 러시아 국가등록증
- 성약 소요기간 : 약 10개월
- 바이어 발굴경로 : SPARK 등 러시아 기업 DB를 기반으로 적합 바이어 발굴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G사는 러시아 시장 진출에 관심이 많아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국가인증을 취득한 상태였음
  - 국가인증 취득에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에 이 사실을 안 바이어들이 관심을 보였음
  - 또한, 국내 기업은 CIS 시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의무 라벨링인 체스니 즈낙(Chestny Znak) 부착 등 바이어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 통상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CIS 시장 진출이 어렵지만, 바이어의 적극적인 관심과 무역관의 소통 지원으로 까다롭고 다양한 대내외 요구 사항들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었음



### 기술력과 인지도 갖춘 한국산 의료기기 수출(임플란트 A사)

- 제품의 비교우위
  - 한국산 임플란트는 독일·스위스 등 유럽산 다음으로 내구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인지도가 높으며, 제재 이후 일부 유럽산 공급이 감소하며 시장 내 수요 증가
- 필수 인증 : EAC 인증
- 성약 소요기간 : 1년 6개월
- 바이어 발굴경로 : 모스크바 내 치과장비 관련 전시회(Dental Expo, Dental Salon)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일반 소비자보다 진입장벽이 높아 중국산 진출이 비교적 저조하며, 비제재 품목인 바 대금 송금도 비교적 용이
  - 치과용 기자재(X-Ray, 구강스캐너 등) 또한 한국산 인지도가 높아 치과기자재는 유망할 것으로 평가
  - 의료기기에 대한 대체 수입처 발굴을 희망하는 수요가 많으며, 주요 경쟁상대의 부재로 인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좋은 시기

## □ 주요 경쟁국 동향

- (중국) '24년 러시아 교역 34%를 중국이 차지, 특히 對중국 수입은 '21년 이후 3년간 72% 증가하는 등 의존도 상승
  - (자동차) 한국 완성차 브랜드 철수 이후 중국차 점유율이 증가하여 '24년 신차 시장 점유율 63% 기록, 중국산 중고차도 2~3년 내 매물 급증 예상
  - (가전) Haier(러시아 내 TV·세탁기 점유율 1위), Hisense, Xiaomi 등 중국산 가전제품 판매량 급증

- (소비재) 화장품을 제외한 소비재는 중국, 튀르키예 등 우호국 중심으로 수입 시장 재편, 러-우 사태 이후 유럽 기업들의 공급 확대 및 시장 탈환 노력 예상
- (기타 우호국) 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의 對인도, 튀르키예, 브라질 교역이 급증하며 산업 전반에서 한국의 경쟁국으로 부상

#### □ 주재국의 대외 수입 규제, 對韓 수입 규제 등

- (對비우호국 관세 인상) '22년 이후 對비우호국 특별관세 지속 확대·인상 중, 품목별로 모든 비우호국 또는 특정 국가에 선별적으로 적용
  - (화장품·욕실제품류) 치약·면도제품·샴푸·세제·립스틱 등에 최대 35% 적용, '25년 1월부 한국산 샴푸(HS Code 3305.10), 헤어래커(HS Code 3305.30), 치약(HS Code 3306.10) 등에 부과 \* 한편, '25년 5월 일부 화장품·향수 특별관세 확대 시 한국을 비롯한 형가리, 슬로바키아 등 제외하며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일부 제고
  - (주류) 맥주·독주류·와인 등에 관세 인상, 특히 맥주는 한국산도 포함되며 리터당 0.1유로(기준)  
→ 1유로('25년 1월) → 1.5유로('25년 9월)로 단기간 내 대폭 인상
- (의무 라벨링) 위조품 방지 및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체스니 즈낙(Chestny Znak) 도입
  - (현황) 러시아 정부가 '17년 최초 도입한 의무 라벨링 제도로 EAEU 역내에서 전방위적으로 시행 및 확대되고 있으며, 주류·유제품·생수·의약품·화장품·의류·담배 등 소비재를 넘어 전자제품·자동차부품·건축자재 등으로 점진적 확대 중(역내산에도 적용)
  - (적용 방법) 대상 품목의 러시아 내 수입자·제조사가 책임을 지니며, 현지 사업자가 담당 기관(CRPT)에 신청하여 데이터 매트릭스(Data Matrix) 형태의 코드 발급, 생산 공정 또는 현지 통관 전에 부착 필요

### 다. 산업

#### □ 주요 산업 개요

- 러시아는 석유·가스가 전체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자원 의존형 경제로, 석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원자재와 농업이 주요 산업 지위 차지
  - 수출에서 석유·가스 비중이 '23년 51.5%, '24년 54.2% 등 꾸준히 과반 차지, 전체 재정 수입의 약 30%를 에너지 부문에서 창출
- 한편, 군수물자 보급을 위한 각 지역 내 방산 제조 시설은 최대치로 가동되고 있으며, 소비재 외 제조업 기반이 약해 제조업 육성 정책 추진 중

### 연도별 러시아 주요 산업의 전체 수출 비중 추이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누계		
HS	산업	비중	HS	산업	비중	HS	산업	비중
2709	원유	29.9	2709	원유	32.8	2709	원유	29.4
2710	석유	11.8	2710	석유	11.3	2710	석유	11.1
2711	가스	9.8	2711	가스	10.1	2711	가스	10.8
2701	석탄, 연탄	8.2	2701	석탄, 연탄	6.1	2701	석탄, 연탄	5.5
1001	밀, 메슬린	2.6	1001	밀, 메슬린	2.3	7601	알루미늄	2.9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9월 5일,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제외)

### □ 현지 주요 산업 최근 동향

- (원유·석유) 러시아 수출의 30% 가량을 담당하는 최대 산업이나, '25년 국제유가 하락 및 루블화 강세로 다소 부진
  - '25년 상반기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 주요 교역국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한 1억 570만 톤 기록
- (가스) '25년 초 따뜻한 겨울 및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 운송 중단 여파로 수출 부진
  - '25년 1~5월 총 가스 채굴량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2,890억m³, 동기간 LNG 생산량도 4.8% 감소한 1,420만 톤 기록
  - 제재 영향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어 '25년 총 러시아산 LNG 수출량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460억m³로 전망
- 서방은 러-우 사태 종식을 위한 對러시아 압박 수단으로 최근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국에 고율의 2차 관세를 주요국 공동으로 추진
  - 실제 미국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25% 추가관세 발효('25년 8월 25일)
- (석탄) 유효 매장량 세계 3위, 생산량 6위의 석탄 산업 선도국이나 최근 수출량 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
  - '24년 수출량 1억 9,620만 톤을 기록하며 2020년대 들어 최저 수준 기록
  - 생산·운반 인프라 노후화에 더해 국제 시세 하락, 제재 영향 등으로 '24년 기준 적자 기업 비중이 전체의 53.3%에 달하는 등 업계 수익성 악화
  - 높은 수입설비 의존도, '25년 1~5월 수출량 중 중국·튀르키예 점유율 60% 등 외국 기술 및 특정 교역 대상국 의존도 심화도 주요 해결 과제
- (농업) 세계 곡물 생산량 4위의 농업 대국이며 '14년 이후 자급률 지속 확대, '23년 이후 과일·베리류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100%에 근접하는 자급률 달성
  - '25년 1~9월 곡물 평균 수확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3.37t/ha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 생산 증가 추세

- (알루미늄)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세계 3위 생산 규모 유지, '24년 3,800톤 생산, '25년 상반기 생산량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

\* 자료 : 주요산업 동향 : Kommersant, Tass, Vedomosti 등 현지 주요 언론 주요산업 동향

## 라. 투자

### □ 외국인 투자 동향

- (외국인 투자 현황) '22~'24년 러-우 사태 및 제재 여파로 투자 역조현상을 보였으나, '24년 4분기 들어 다시 유입세로 전환
  - 연도별 순 투자유입 규모는 '22년 △ 398억 달러, '23년 △ 100억 달러, '24년 △ 81억 달러로 러-우 사태 발발 이후 지속적 마이너스 기록
  - 다만 전년도 투자 급감에 대한 기저효과, 우호국 투자 확대, 종전 기대감 등 영향으로 '24년 4분기 19억 달러, '25년 1분기 59억 달러 유입
- (해외 기업 철수) '22~'23년 해외 기업 다수의 러시아 시장 철수가 있었으나, 철수세 인상(15%→35%), 추가 철수 기업 수 감소로 '24년 이후 철수 비율 하락
  - 철수 프로세스의 복잡성 및 철수세 등의 이유로 잔류 기업들의 추가 철수 결정은 줄어들었으며, 2,100개 이상의 중견급 이상 글로벌 기업이 지분구조 변경·리브랜딩 등을 통해 러시아 내 비즈니스 유지 중

### 주요 외국 기업의 러시아 시장 철수 사례

구분	조치 내용	산업	국가
아디다스	사업 중단	의류/신발	독일
시스코	사업 순차적 종료	IT	미국
포드	철수 및 자산매각	자동차	미국
맥도날드	철수 및 자산매각	패스트푸드	미국
닛산	철수	자동차	일본
오비아이	철수 및 자산매각	공구	독일
르노	자산 매각	자동차	프랑스
지멘스	철수	전력/운송	독일
스타벅스	철수	음료/커피	미국
토요타	철수 및 자산매각	자동차	일본

자료: 예일대 경영대학원

- (주요 투자유지 산업·지역) 수입대체 중점 산업 및 지역별 특화 산업
  - (산업) 건설, 에너지, 화학, 자동차, 조선 등에서 중국 기업 중심의 투자 진출 활발

- (지역)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우랄산맥 서부 주요 도시와 더불어, 아무르주, 연해주 등  
극동 러-중 접경지역 투자 활발
  - \* 서부 대도시의 경우 유통·상업·연구 등 분야, 극동지역의 경우 건설, 인프라 분야 투자 활발

## □ 주요 경쟁국(중국, 일본 등)의 현지 투자 유입 동향

- (주요 투자국) 주로 중국 등 러시아의 우호국으로부터 투자 유입
  - 아시아(중국, 홍콩), 중동(UAE, 튀르키예, 오만), CIS(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등  
국가들이 주요 對러시아 투자국 지위 차지
    - \* 다만, 이 중 러시아 기업의 해당국 소재 지사·법인의 비중도 상당한 편
  - 한편, BRICS 외연 확장 및 국가 간 협력이 확대되며 인도 등 BRICS 주요국 기업의 對러시아 투자  
관심도 증가 추세
  - 다만 對비우호국 차별 조치에 따른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으며, 또한 아직까지 중국 외 외국인직접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

## □ 러시아의 對한국 투자 현황

- '25년 2분기까지 러시아의 對한국 투자 누적액(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통계 신고금액 기준)은 약 2억  
4,800만 달러로, 타 주요국 대비 투자가 저조한 원인은 러시아의 에너지·자원 대기업들이 CIS 및  
중국 위주로 투자하기 때문으로 보임(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통계)

## □ 한국의 對러시아 투자 진출

- (투자액·법인 수) '25년 상반기까지 누적 투자액 32억 달러, 누적 법인 678개
  - 러-우 사태 이후 對러시아 투자 지속 감소, 비제재 분야 소액 투자만 지속
  - 그러나 '25년 2분기 산업 생산시설 건설 분야에서 투자액 1억 달러 이상 기록하며 투자액 급증,  
'21년 투자액 1억 3,000만 달러에 근접

### 한국의 對러시아 투자 진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분기 누계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	59	△54.6	25	△57.4	10	△61.3	109	5,350.0
신규 법인 설립 건수	5	△78.3	5	-	3	△40.0	14	366.7

주: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현지법인·지점·지사 모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 對러시아 투자 진출 한국 기업 동향

- (비즈니스 지속) 식품·화장품·윤활유·타이어·의료기기·화학제품 등 비제재 분야 기업들은 현지 사업체 지속 운영·확장 중이며, 틈새시장을 기회로 공략해 신규 진출하는 기업들도 존재
- (비즈니스 축소·철수) 자동차·전자·건설·항공 등 제재 분야에서는 자산 조건부 매각, 현지 생산 축소·중단, 인원 감축, 제3국(UAE 등)으로 자사 이전 등 다양한 형태로 비즈니스 축소·철수 후 지정학적 상황을 주시 중
- (진출 지역) 모스크바에 집중되어 있으나 상트페테르부르크(소비자·자동차), 블라디보스토크(물류·조선), 노보시비尔斯크(식품) 등 대도시 위주 진출 기업 상존

##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 K-뷰티 전성시대, 러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화장품 제조 A사)

- (기업 정보) 국내 화장품 제조사로 스킨케어, 클렌징 제품, 헤어/바디 제품을 고루 취급
- (성공 사례) 국내 A사는 3년 전 러시아 최대 유통망 G사에 입점 성공, 원활한 현지 마케팅을 위해 법인 설립('25년 1월)
  - 모스크바 최대 화장품 전시회(InterCharm) 참가 등 꾸준한 출장과 바이어들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디자인 수정, 패키징 개발 등)으로 바이어 신뢰 및 소비자 인지도 확보
- (시사점) 법인 설립을 추진할 정도로 현지 마케팅에 적극성을 보인 점, 바이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 트렌드를 잘 읽어낸 점이 동사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판단됨
  - 단순 스킨케어 제품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 되어, 경쟁이 심하고 바이어들의 요구조건이 까다로워진 바, 신규 진입은 비교적 어려운 상황이며, 빅바이어들은 자사 브랜드(PB 제품) 개발·론칭을 중점적으로 진행 중
  - 바이어들은 다양한 품목군(스킨케어 외 헤어/바디 제품 등)을 단번에 공급할 수 있는 거래처를 선호하고 있으며, 결제·공급조건도 점점 더 바이어에게 유리한 조건을 많이 제시하고 있음



### K-푸드 프랜차이즈 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 추진(한식 프랜차이즈 K사)

- (기업 정보) 김치찌개 전문 프랜차이즈 K사는 러시아 관광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투자 진출 결정
- (성공 사례) 과거 러시아 재래시장을 세련된 실내 시장으로 개선하여 운영 중인 Food Center 입점 공략
  - 최근 러시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실내형 재래시장의 Food Center가 복합 문화 중심지로 관심을 받고 있음
  -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형 푸드센터(M센터) 내 한국 음식점이 부재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면담 후 본격 입점 추진
  - 다만 현재 현지 설립 법인으로의 투자금 송금 애로로 인해 법률 자문 등 방안 모색
- (시사점) 글로벌 프랜차이즈 철수로 시장 프랜차이즈 공백 상태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한식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기회로 삼아 선제적으로 진출을 추진하는 건으로 상징성이 큼

## 2. 유망 산업

### 가. 한류 연계 산업(화장품·식품·콘텐츠)

#### □ 러시아 내 한류 현황

- 러시아의 한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1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며 한국에 우호적인 소비자 기반 및 산업 구조 형성
  - 소수의 마니아층이 형성되는 단계를 넘어 주류 문화로 편입, K-POP·드라마를 넘어 한국에 대한 지적 관심이 확대되며 도서·웹툰 등 한류콘텐츠 소비 다변화

#### □ 분야별 동향

- (화장품) '25년 1~7월 한국의 러시아 화장품 수출은 2억 5,662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 승용차에 이어 한국의 러시아 수출 2위 품목
  - 최근 △ 이커머스 확대, △ 기능 중시, △ 프리미엄화 뚜렷,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에서 고가 브랜드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 ※ 러시아 뷰티 유통망 G사 인터뷰

- 한국 화장품은 5년 전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했으며 가격, 품질, 포장, 이미지가 조화된 결과
- '22년 이후 소비자들은 비싸진 유럽산 대신 아시아산 선택, 검증된 한국산은 유럽 대체 가능

- (식품) '25년 1~7월 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면류(+71.8%) 김(-0.5%), 음료(+12.5%) 등으로, 비우호국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매출 우상향
  - 현지 유통사들이 한류 식품을 한강라면 팝업, 스낵코너 등 체험형 상품으로 포지셔닝하려는 움직임 존재, 젊은 계층 중심으로 인지도 상승 중
- (콘텐츠) 러시아 3대 플랫폼(Kinopoisk, Ivi, Okko) 모두 K-콘텐츠 취급 확대, 현지 한류 확산 속 K-콘텐츠에 대한 인지도는 최고 수준

	
모스크바 소재 한강라면 카페	러시아 OTT 내 한국 콘텐츠

##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 □ 자동차

- (개요) 글로벌 제조사 철수에 따른 신차 공급 부족 현상 지속, 중국산 자동차 대거 진출과 함께 자동차 생산은 현지 생산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는 분야, 수요 증가 속 폐차세 인상은 위협요인
- (신차) '22년부터 중 완성차 메이커의 러시아 내 제조가 본격화되었으나, '24년 러시아 전체 차량 생산량은 80만 대로 제재 이전인 '21년 대비 60% 수준
  - 자동차 가격 인상, 고금리 지속에 따른 대출 감소 등으로 '25년 판매량 둔화
    - \* '25년 1~5월 판매량 43만 대로 전년 대비 26% 감소, 주 원인은 자동차 가격 인상 및 고금리 지속

### 러시아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

정책	내용
자동차 산업 성장 전략 ('23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5년까지 신차 시장에서 러시아산 비중 80%까지 확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산' 인정 위해서는 러시아에서 조립되거나, 러시아산 부품 비중 등 평가점수 기준 이상 도달 필요</li> </ul> </li> </ul>
완성차 조립과 부품 생산 보조제도 개정안('24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생산자가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자동차 부품 국산화 실현한 경우, 설비 투자액이나 라이선스 비용에 따라 보조금 지급</li> </ul>
승용차 구입 시 대출 우대 요건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산 전기차 구입 시 대출액 감경 검토('24년 9월 산업통상부)</li> </ul>

- (중고차) '24년 러시아 중고차 판매량 600만 대로 10년 만에 최대치 기록하였으나, '25년 경기 둔화로 단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25년 1~4월 수입 시장 점유율은 일본 51%, 한국 21.6%, 중국 11.3%로, 과거 일본이 사실상 독점했던 러시아 중고차 시장을 여러 국가가 분할 점유
    - \* '25년 1~7월 對러시아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5억 2,537만 달러

### □ 자동차 부품(HS Code 8708.99는 수출통제품목)

- 중국산 및 중앙아시아를 통해 유입되는 물량 대폭 증가 속 인도·이란도 일부 진출, 신규 진출 제품의 시장 내 검증 시기로 품질이 일정하지 않는 등 이슈 존재
- 제동장치, 서스펜션, 스티어링 휠 등 비제재 부품 공략, 향후 한국 브랜드 전면 복귀 가능성에 대비함과 동시에 점유율 높은 중국·러시아산 차량 부품으로의 포트폴리오 확장 고려
- 자동차용 윤활유·타이어는 한국의 對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로 한국산 점유율이 높으나, 러시아 국내 생산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서방·중국과의 경쟁도 치열

## 다. 의료·제약

### □ 의료기기

- (정책) 수입 대체화 정책 중점 분야로,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투자가 산업 성장 견인
- (현황) 정밀 대형 장비는 기술 장벽·중간재 조달 애로로 자국 생산 난항
  - '22년부터 국산 의료기기 우대 정책을 도입하여 공공조달 시장에서 국산 장비 점유율이 약 28.5% 까지 올랐으나, 병원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입 선호 뚜렷
  - 고가의 MRI, 초음파 진단기, 로봇 등은 서방 기기 도입이 제한되며 중국산 비중 확대, 제조사의 지역 제한(Geo-Locking) 정책으로 우회 도입 시에도 사용에 애로
- (기회요인) '25년 2월부 **러시아 의료기기 수출 시 상황 허가가 면제되며 한국산 의료기기의 러시아 수출 절차 부담 완화, 서방 주요국보다 선제 진입 가능**
  - 제재·물류·결제 등 복합적인 이유로 독일·일본산 공급 감소 속 한국 수출 확대, 특히 한국산 인지도가 높은 치과용 X-ray, 초음파 진단기 등 증가

### □ 의약품

- (정책) '2030 제약 산업 발전 전략' 추진, '30년까지 자국산 비율 70% 목표
- (현황) 러시아 수입 1위 품목이며 의약품 전체 시장에서 수입 비중은 55%, 일부 서방 기업이 철수했으나 비제재품목으로 독일·스위스 등 유럽산 수입 지속
- (기회요인) 생산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해외 선진 기술 도입 모색 중으로, 제네릭 의약품 제조 기술 및 바이오시밀러 개발 관련 기술 협력 모색 가능

### □ 의료서비스

- (사례) 현지 대형 병원이 한국형 산후조리원 유치 위해 한국 프리미엄 산후조리원과 접촉,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개점 검토 중

#### **러시아 의료서비스 진출 추진 사례**

기업명	주요 내용
M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최대 종합병원 M사와 한국 프리미엄 산후조리원 I사가 협의 끝에 모스크바에 1호점 오픈 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2호점 오픈 검토 예상</li> <li>• 한국 드라마 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출산 후 산모 미용 관리가 가능한 산후조리원에 주목, 미용 의료기기 종류 및 기능에 관심 표현</li> <li>• 동 M사는 한국의 한방의료에도 관심, 제재 해제 시 적극적 투자유치 시도 예상</li> </ul>

## 라. AI

### □ 산업 동향

- 제재로 핵심 하드웨어 및 인력 부족한 상황임에도 기술 혁신 지속, '30 국가 AI 발전 전략 이행 및 산업별 AI 적용 확산 노력
  - 투자 유치, 표준 개발, 인재 양성 등을 목적으로 90여 개 러시아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AI 얼라이언스(AI Alliance) 구성하여 12개 분야 191개 과제 이행 중, 최근 AI 정책 이행 컨트롤타워 'AI 개발센터' 설립 계획 발표('25년 5월)
  - BRICS·인도네시아·세르비아와 AI 기술 개발 연합체 구성('24년 12월), 중국·인도 등 우호국과의 양자 협력 시 AI를 주요 의제로 선정하는 등 대외협력 활발

### 러시아 AI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주요 동향
Yande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러시아 최대 IT 기업</li> <li>- 그룹 서비스의 핵심으로 키우기 위해 'Yandex GPT' 개발, 해당 시스템이 장착된 AI 비서 Alice는 러시아 내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li> <li>- 최근 공개된 'Yandex GPT5'는 'GPT-4oMini' 준하거나 앞선다고 평가</li> </ul>
S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러시아 최대 금융그룹</li> <li>- 해당 기업은 은행 업무를 넘어 AI를 활용 테크 기업으로 빠르게 전환 중</li> <li>- 슈퍼컴퓨터 'Christofai NEO'를 운영하는 AI 모델 학습 진행 중</li> <li>- SberCloud, SberMedi, SberDevices 등 자회사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li> <li>- 또한, 매년 러시아 최대 AI 포럼인 'AI Journey'를 개최하여 교류의장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ber 챗봇 'Gigachat', 이미지 생성 모델 'Kandinsky'는 약 1,800만 명의 사용자 수 기록</li> </ul> </li> </ul>
M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러시아 최대 이동통신사</li> <li>- 최근 90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는 개발자용 AI 비서 'Kodify 2' 출시</li> <li>- '21년 안면인식 솔루션 기업 'Vision Lab' 인수를 통해 자사 3,500개 매장에 안면인식 서비스 운영</li> <li>- 그 외 화상회의 솔루션, 핀테크, 영상 스트리밍, 광고 플랫폼 등 제공 서비스에 AI 적용</li> <li>- MTS 산하 MWS AI, 자체 LLM 개발에 약 1,200만 달러 투자</li> </ul>

자료: 기업 홈페이지 및 KOTRA 노보시비르스크 자료 종합

### □ 전망 및 기회요인

- 러시아 AI 산업은 정부 주도로 민관이 긴밀히 협업하는 체계로 발전
  - 정부가 관련 정책 추진을 일원화하고 국가 차원의 소버린 범용 AI 서비스와 대형 테크 기업의 분야별 수직형 AI가 결합하여 확산하는 추세
- 글로벌 AI 시장 재편 과정을 분석해 러시아 등 유망국가와의 협력 기회 모색, 'Born Global AI' 개발 전략 수립 필요

### 3. 협력 기회

#### 가. 통상·G2G

- (무역협정) '19년 6월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이 개시되었으나, 코로나19 및 이어진 러-우 사태 발발로 인해 '20년 4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

#### □ (G2G)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 (극동 개발) 러시아는 서쪽 수도권에 편중된 경제·인구 구조를 개선하고자 신동방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방 거점도시에 산업생산·자원개발시설, 의료시설 구축 등을 위해 대규모 투자 진행, 특히 극동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가까워 한국 기업의 진출 용이
- (기술 협력) 전통적으로 수학, 물리학, 화학, 우주항공 등 기초 과학기술이 발달해 한국의 응용 기술과 접목 시 원원(Win-Win)하는 상호 보완적 구조 형성 기대
  - (AI 협력) 러시아 정부 "30년까지 AI 발전 전략" 추진, 중국·인도·브라질 등 13개국 ICT 기관 참여  
민관협의체 AI Alliance 구성하여 투자·해외 협력 등 지원
    - \* AI 발전 전략은 '30년까지 AI 국내 총생산 1조 4,000억 달러 목표, 슈퍼컴퓨터 구축 등 15억 달러 투입

#### 나. 공급망(자원 개발)

- (석탄) 러시아산 석탄은 지리적 이점과 소규모 단위 수입 가능, 최근 최대 수요처인 중국·인도의 수입 감소로 가격 경쟁력 또한 제고 중
- (희토류) 러시아 내 희토류 매장량은 약 2,850만 톤으로 세계 2위이나 생산 비중은 1% 미만, 저렴한 중국산에 밀려 상당 부분이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추후 대체 공급처로서 부상할 가능성 존재(러시아 정부 '30년까지 희토류 등 희귀금속 자급률 제고 추진)
- (요소·요소수) 요소의 원료인 천연가스가 풍부하고 '21년 요소수 대란 시 대체 공급국으로 떠올랐던 러시아의 요소수 생산은 세계 4위 수준(5.5%)이며, 산업용·비산업용 요소수 생산이 활발한 만큼 베트남·인도네시아에 이어 잠재적 공급국
- (니켈) 스테인리스강을 합금·전기차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소재로 러시아는 세계 생산량 10%를 차지, 최근 對우호국 니켈 수출을 늘리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Norilsk사 등이 활발하게 활동 중으로 협력 가능성 존재
- (마그네슘) 항공기·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마그네슘 세계 4위 생산국

## 다. 프로젝트

### □ 최근 동향

- 제재 극복을 위한 산업육성·자원개발 등 우호국과의 협력 통한 프로젝트 다수, 대형 프로젝트 재개 움직임 및 극동 중심 산업·교통 인프라 개발 활발
  - (산업 육성) 제재 이후 수출 급감에 따라 자원 활용을 위한 대규모 가스 화학단지 조성 및 2차전지 생산공장 건설, 리튬·희귀금속 등 전략자원 채굴 확대
  - (금융 협력) 국영 에너지기업(Rosatom 등)이 중국 루안민비 채권 발행 검토, 서방 제재로 자본 조달이 제한된 가운데 우호국과의 금융 협력 강화 움직임
  - (프로젝트 재개) Novatek의 Arctic LNG-2 프로젝트는 제재로 '23년 가동 중단되었으나 '25년 4월 일부 생산 라인 재개, 8월 일평균 1,500m<sup>3</sup> 생산

### □ 유망 분야(제재 해제 시)

- (에너지) 정유 설비(펌프, 압축기, 공기냉각시스템, 원심 펌프)의 수입의존도 평균 65%, 천연가스 액화 설비 수입의존도 80%로 추산되며, 러시아 정부는 '30년까지 관련 설비들의 현지 생산을 추진 중으로 관련 프로젝트 다수 전망
- (조선) 러시아 정부는 '30년까지 조선 건자재의 70%를 현지 생산화 추진 중으로, 기존 LNG운반선 생산 외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 참여 및 기술 협력(기술이전, 합작투자)이 유망하며, 북극항로 개발에 따른 쇄빙선 및 항만 인프라, 북극지역 개발 관련 협력 수요도 증가 전망
- (건설) 고금리 지속·경기 둔화로 '24년 대비 건설업 경기는 둔화되었으나, 지방 스마트시티 건설 및 정부 투자 인프라 개발 활발하여 수요 지속, 중국 및 자국 기업의 비중이 높으므로 재하청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감리 분야 등 공략
- (의료) 국산 수입대체가 미진한 고정밀 장비 및 K-뷰티 연계 미용기기 공급, 프리미엄 병원 진출 및 의료시스템 이전·컨설팅 등 서비스도 공략 가능
- (스마트팜) 러시아의 스마트팜 시장은 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식량안보 및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주도로 집중 육성, 기타 CIS 국가의 높은對러시아 기술·자본 의존도 고려 시 CIS 진출의 교두보로 러시아 활용 가능
- (기자재 공급) 수입의존도가 높으나 서방 기업 이탈로 조달 난항인 분야 선제 공급, 수입대체 중점분야 (자동차, 전자, 의료, 화학 등) 및 생산 자동화 설비 위주 공략

\* '25년 1~7월 한국의 对러시아 △ 기타 기계류 +417%, △ 기계류 부품 +787% 등 수출액 대폭 증가

### III. 진출전략

- |                 |    |
|-----------------|----|
| 1. PEST/SWOT 분석 | 44 |
| 2. 진출전략         | 46 |

# III 진출전략



## 1. PEST/SWOT 분석

### PEST 분석



#### 정치정책(Political)

- (외교) 러-우 사태 지속, BRICS 중심 新통상질서 구축 노력
- (국제사회 제재에 대응) 對중국·인도 협력 강화, 결제애로 해소 노력
- (대내외 정치) 내부적으로 정치적 안정, 우호국과 외교·안보 협력 강화
- (수입 대체화) 자국 산업 육성 정책 강력 추진, 현지 생산화 목표
- (지역균형발전) 극동 개발 지속·지방 도시 내 산업 투자 강화



#### 경제(Economic)

- (경제성장률) '24년 4.3% 성장, '25년 이후 1~2% 저성장 전망
- (기준금리) 고금리 지속, '25년 3차례 인하해 21→17% 도달
- (환율) 달러당 90~100루블 유지하였으나 종전협상 후 루블 강세
- (인플레이션) '24년 9.5%로 높은 수준이나 '25년 둔화 추세
- (고용) 군 동원령·인근국 노동자 유입 감소로 인력 부족 문제 지속



#### 사회문화(Social)

- (소비 인구) 젊은 소비층 증가, 인근국(EAEU 등) 연계 진출 용이
- (소비 패턴) 경제 회복 및 낮은 저축률로 소비는 소폭 증가세
- (대체 소비) 서방 제품 철수 시장에 공백 발생, 경쟁구도 재편
- (콘텐츠) 서방 콘텐츠·소셜미디어 공급 중단으로 대체수요 다대
- (웰빙) 건강에 관심 높은 젊은 세대 증가, 관련 제품 소비 증가



#### 기술(Technological)

- (기초과학) 우주항공·화학 등에서 원천기술 및 고급 인력 보유
-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강화, 인터넷 보급률 확대
- (AI 기술) 미국 대항 자체 AI 기술 개발 위한 예산 대거 투입
- (금융) 대러 제재에 따른 독자적(및 우호국 중심) 결제망 활성화 노력
- (기술이전) 생산 기술의 점진적 확보로 생산 현지화 추진

##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 수준 한류 열풍 지속</li> <li>• 자동차, 조선, 전자, 의료, 기계·장비 등 러시아 수입의 준도 높은 분야에서 경쟁력 보유</li> <li>•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브랜드 인지도</li> <li>• 러-우 사태 불구 한국 진출 기업 잔류 및 비즈니스 지속으로 신뢰 구축</li> </ul>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방 경쟁 기업의 철수로 시장 공백 발생</li> <li>• 석유·가스 외 니켈, 요소 등 핵심자원 보유</li> <li>• 이커머스(E-commerce) 활성화 및 수입 시장 확대</li> <li>• 한국은 러시아의 6대 수입국, 기존 주력 품목을 바탕으로 한 품목 다변화</li> </ul>			

###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20~30대 신흥 여성 소비층 적극 공략
- 한류 확산 K-콘텐츠·서비스 진출 강화
- 수입대체산업 연계 품목 수출 확대(기계장비 등)

한류 활용 문화행사  
동반 마케팅 믹스

###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중국, 튀르키예 진출 등 新경쟁구도에 대응, 중저가 제품과의 차별화 품목 발굴
- 현지 생산, JV(합작법인) 투자 진출, 서비스 품목 강화 등
- 기존 인지도 및 진출 기업 인프라(제재 불구하고 잔류) 활용

고급 브랜드  
이미지 구축 등  
전략적 포지셔닝

###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식품·의료·자동차 소모품 등 비제재 품목 수출 확대
- K브랜드 인지도 활용 이커머스(E-commerce) 중심 소비자 진출
- 희토류, 니켈, 요소 등 핵심자원 대체 공급망 활용

경쟁구도 재편 속  
기회시장 진출

###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금융제재 대응 수출대금 송금 가능 루트 확보
- 규제 정책 변화 모니터링 및 탄력 대응
- 효과적인 Exit(출구) 전략 수립 및 규제사례 수집

리스크 단계별 대응 강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다각화

## 2. 진출전략

### 2026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 또는 산업

통상 환경·  
공급망 변화

EAEU  
경제공동체 지속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정착한 한류

수출 호조품목  
수출 더하기

자국 산업 육성 정책과  
높은 수입의존도

KOTRA가 제시하는 진출전략



- 비제재 품목 중심 수출구조 재편(한국 중소기업 수출 9위 시장)
- 글로벌 기업 철수 공백, 중국·인도·튀르키예 우호국 중심의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품질 활용해 시장 선점

- 통합 관세·인증, 인구 1억 8,000만 EAEU 시장 동시 진출
-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중심 중앙아시아 시장 연계 진출 및 물류 활용

- 기존의 기술력에 한류가 더해져 KOREA 브랜드 이미지 확산, K-POP, K-콘텐츠 활용한 전략 유효
- 소비재 온·오프라인 행사 참가 및 SNS 마케팅 확대

- 화장품·식품·중고차·자동차 소모품(윤활유, 타이어)·의료기기 품목별 마케팅 강화 및 신규 틈새 품목 발굴
- 높은 對중국 의존도 속 신규 바이어 공략

-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 현지화, 설비 현대화 정책 공략
- 핵심 부품 수급 난항, 기술 개발 지연으로 첨단산업은 높은 수입의존도 유지, 의료·자동차·전자·IT 분야 기회 발굴

경쟁구도 재편 속  
기회 포착,  
현지 정책과  
한류 활용

전략 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정착한 한류, 소비재·콘텐츠 동반 진출

전략 ② 新경쟁구도 속 전략적 포지셔닝 통한 가치 재조명

전략 ③ 수입 대체화·생산 자동화 활용 비제재 설비·부품 공급

전략 ④ 산업구조 전환기, 서비스 진출 확대·다변화

## 전략 ①

##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정착한 한류, 소비재·콘텐츠 동반 진출



## 전략 수립 배경

- 한류 콘텐츠(드라마, 음악, 웹툰) 영향이 소비문화 전반에 침투하며 K-POP 굿즈, 콜라보 패션·뷰티·음식 등 파생 산업 수요 상승
- 한국 소비재 수출 확대 시기에 브랜드 이미지 구축 통한 시장 점유율 추가 확보, 한류 콘텐츠 및 현지 SNS 적극 활용한 마케팅 필요

## □ 현지 동향

- 러시아 내 한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1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며 한국에 우호적인 소비자 기반 형성
  - (K-Pop) 러시아 한류의 중심으로 굿즈 및 커버댄스 시장도 지속 성장, '22년 러-우 사태 이후 중단되었던 한국 아이돌 콘서트도 '24년부터 재개
  - (K-Contents) 러시아 3대 플랫폼(Kinopoisk, lvi, Okko)\* 모두 K-콘텐츠 취급 확대, 한류 확산 속 한국 드라마·영화 인지도는 최고 수준
  - \* '22년 이후 Netflix 등 서구 플랫폼 철수하며 러시아 자체 OTT 이용 활발
- (K-Beauty) '20년 이후 기초화장품을 주력으로 러시아 수입 시장 1위, 최근 기능성 및 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로 한국 브랜드 인기 지속
- (K-Food) 현지 유통사들이 한류 식품을 체험형 상품으로 포지셔닝하며 젊은 계층 중심으로 인지도 상승, 현지 한국 스트리트푸드 프랜차이즈 인기

## 〈러시아 내 한국 콘텐츠 관련 제품〉

	
모스크바 소재 K-POP 굿즈 매장	마트 내 오징어게임 테마 한국 즉석조리식품

## □ 유망품목

- (기능성 화장품) 고기능 성분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 기술력과 효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차별화 필요
  - 복잡한 뷰티 루틴을 간소화하려는 소비자 트렌드에 대응해 다기능·올인원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
  - 피부질환 증가 및 소비자의 전문성 추구에 따라 약국 더마코스메틱 수요도 확대되고 있어, 현지 약국 유통망을 활용한 시장 진입 전략도 검토
- (건강기능식품) 자국산 비율이 높은 시장이며 수입산과는 가격 차이 상당, 최근 안티에이징이 전반적 트렌드로 부상하며 현지 유통망 PB 상품 출시 활발
- (K-Pop 굿즈) 러시아 내 온라인 판매 활발하며,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에서는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하며 사업 확장 중
  - 모스크바 소재 굿즈 매장 선정 인기상품 1위는 라이트스틱(Light Sticks)으로 콘서트용이나 한정판 제품은 수집 대상, 2위 포토카드, 3위 아이돌 멤버 이미지가 들어간 의류, 모자, 에코백, 키링 등 굿즈, 4위 K-Pop 앨범, 5위 앨범 카드 순
- (브랜드 의류) 서방 브랜드 이탈로 오프라인 매장은 중국·러시아 브랜드가 차지, '24년 한국 패션 브랜드가 모스크바 대형 쇼핑몰에 개점하는 등 진출 움직임 존재

## □ 진출전략

- (품목 다변화) 뷰티 진출 품목 대부분이 기초 화장품(스킨케어·크림)으로 한국 제품 간 경쟁 격화, 향수·립스틱 등 현지 트렌드에 맞는 품목 신규 공략 필요
  - 한국 기초화장품의 브랜드 이미지에 힘입어 소비자 사이에서 한국 색조제품에 대한 수요도 뚜렷, 니치 향수 등 최근 트렌드를 한국 브랜드 활용해 선점 필요
- (현지 SNS 활용 마케팅) VK, Telegram, RuTube 등 자국산 SNS가 제재 이후 대체 플랫폼으로 부상, 이들 채널에 한류 콘텐츠를 노출하고 소비자와 소통 필요
  - 해당 플랫폼 내 바이럴 마케팅 효과 탁월, 현지어 SNS 계정을 개설하고 한류 관련 이벤트, 챌린지 등을 기획하여 팬 커뮤니티를 브랜드 커뮤니티로 전환
- (한국 콘텐츠에 등장한 제품 소싱) K-콘텐츠 인기 지속 증가로, 드라마·영화에 등장한 스타일·제품이 러시아 인기에도 실시간 반영, 일례로 '오징어게임3' 방영 이후 드라마에 등장한 젯병에 대한 바이어 문의 증가

**전략 ②****新경쟁구도 속 전략적 포지셔닝 통한 가치 재조명****전략 수립 배경**

- '22년 이후 서방 이탈로 많은 분야에서 공백 발생, 상당 부분을 중국 중심 우호국이 차지,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고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는 현지 수요에 부합
- 한국 제품은 서방 못지않은 품질과 브랜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어, 프리미엄 대안으로 부상할 잠재력 보유, '가성비를 갖춘 프리미엄 제품'으로 포지셔닝 필요
- 한국산 자동차·가전 러시아 내 높은 인지도 보유, 제재 해제 후 점유율 회복 전략 마련

**□ 현지 동향**

- 글로벌 기업이 철수한 자리를 중국 중심의 우호국 파트너가 차지하며 최근 현지에서는 과도한 對중국 의존도 경계하며 대체 공급선 확대 필요성 언급되기도 함
  - 한국 프리미엄 제품의 입지를 가지고, 희소성과 품질 측면에서 가치 재조명 가능

**□ 유망품목**

- (고급 생활용품) 비제재 품목으로 서방 제품 존재하나 장기적으로 유럽산을 대체할 중·고급 제품 수요 존재, 기술력과 브랜드 갖춘 한국산 유망
- (자동차 용품) 윤활유·타이어 등은 한국의 對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으로 부상, 한국산 인지도는 높으나 프리미엄 제품은 아직 유럽산의 점유율이 높은 편
- (의료기기) 서방 장비 공백 속 중국 등 러시아 우호국 대비 한국 기술력 우수, '25년 對러시아 의료기기 수출 시 상황허가 면제로 서방 주요국보다 선제 진입 가능
  - \* 제36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로 의료기기의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 시 상황허가 면제('25년 2월 28일)
  - 러시아는 한국 의료시스템 도입 경험 및 수요 풍부하며, 한국向 의료관광도 활발하여 긍정적 인지도 보유

**□ 진출전략**

- (포지셔닝) 한국산은 '가성비를 갖춘 프리미엄 제품'으로 마케팅 필요, 가격 경쟁력 확보와 함께 고급 소재·기술, 디자인 강조, 고급 유통망 내 판촉 등 활용
- (브랜드 신뢰 확보) 품질 보증과 AS에 집중해 신뢰도 제고
  - 서방 브랜드의 러-우 사태 이후 갑작스런 이탈에 대한 불신, 기타 우호국 제품 내구성에 대한 인식 등 고려하여 장기간 제품 보증, 현지 AS 센터 제휴 확대

### 전략 ③

### 수입 대체화·생산 자동화 활용 비제재 설비·부품 공급



#### 전략 수립 배경

- 제재 이후 기존의 수입 대체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생산 자동화 움직임도 활발
- 그러나 △ 기술역량 부족, △ 핵심 부품 수급 어려움 등으로 단기간 내 자국산 대체는 난항
- 한국은 고기술 제조역량을 갖춘 파트너로 산업·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회 모색 가능

#### □ 현지 동향

- (수입 대체화) 높은 기술 장벽 및 중간재 수입 제약으로 첨단산업 중심 대체 난항
- (생산 자동화)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주도 생산 자동화 적극 추진, 러시아 스마트 제조 시장은 AI 발전 전략과 함께 '30년까지 두 배로 성장 전망'

#### □ 유망품목

- (생산 자동화 설비) 공정 로봇화·디지털화 수요 증가, 시장규모 '24년 830억 루블(약 10억 달러) → '30년 2,070억 루블(약 26억 달러)로 연평균 16.5% 성장 전망
  - 현재 △ 발전소, △ 야금업계, △ 화학업계 등에서 사용되는 자동화 장비 98% 가량이 독일 Siemens사 제품 등 수입에 의존하는 추세로, 현지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 러시아산 장비의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 가능성에 의문
- (식품가공기계) 식품 산업은 수입대체율이 가장 높은 분야 중 하나로, 식품 생산 현장에 로봇·드론·자동화 라인·AI 도입 중이며, 특히 지난 5년간 유제품 산업 중심으로 자동화율 38% → 50%로 상승, 대규모 설비투자 지속
  - \* '25년 1~9월 한국의 러시아 △ 식품가공기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1% 증가한 2,595만 달러
- (기계 부품) 러시아 국내 생산 확대 움직임에 따라 향후 전반적인 기계·부품 수요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25년 1~7월 한국의 러시아 수출액 대폭 증가
  - \* '25년 1~9월 한국의 러시아 △ 기타 기계류 +418%, △ 기계류 부품 +773% 등 수출액 대폭 증가

#### □ 진출전략

- (현지 파트너링) 러시아 정부의 현지 생산 장려로 향후 관세·비관세장벽 리스크 존재하므로,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위탁생산 또는 일부 반조립 등 활용
- (포트폴리오 다양화) 지역·도시별 산업 특성 파악,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거점도시 및 EAEU 내 타국도 공략하며 상품 라인업 다양화 및 리스크 분산

## 전략 ④ 산업구조 전환기, 서비스 진출 확대·다변화



### 전략 수립 배경

- 자원 위주의 경제구조 탈피 과정에서 서비스 산업이 러시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 GDP 내 서비스 비중 약 60%(세계은행)이며 향후 선진국 수준인 75% 도달할 것으로 전망
- 한류가 주류 문화로 정착하고, K-뷰티의 위상이 높아지며 서비스·콘텐츠에서도 기회요인 발생

### □ 외식 프랜차이즈

- (시장 동향) 한류가 주류 문화로 확산되면서 K-뷰티에 이어 K-푸드도 부상, 그러나 외식으로서의 한식은 현지 프랜차이즈 및 기존 한식당 위주로 운영

#### ※ 한식 스트리트푸드 체인 Chicko

- 트렌디한 인테리어와 활발한 SNS 마케팅으로 러시아 전역 및 카자흐스탄으로 빠르게 확장
- 김밥, 핫도그, 버블티 등 한국 길거리 음식을 현지에 맞게 재해석한 메뉴 판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
- 신규 프로젝트로 '24년 8월 즉석 라면카페 'Kono' 론칭하며 현지 한류 외식 트렌드 주도



Chicko SNS 게시글



라면카페 Kono SNS 게시글

- (유망 분야) 프리미엄 캐주얼 다이닝, 속인숍 그랩앤고(Grab&Go) 카페 등
  - K-콘텐츠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인지도 확보, 한국에서 온 브랜드임을 강조, 원활한 진입 및 경쟁을 위해서는 중산층을 겨냥한 가격 설정 및 포지셔닝 필요

### □ 의료·헬스케어 서비스

- (시장 동향) '24년 유료 의료서비스 총액 1조 6,000억 루블(약 2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 전체 중 민간 의료 부문 비중이 39%까지 확대되며 대도시 중심의 프리미엄 진료·검진·미용 분야가 성장 주도
- (유망 분야)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대형 병원과 협업 통해 K-뷰티 기반 토클 헬스케어, 산후조리원, 건강검진 등 웰니스 관련 서비스 진출·컨설팅

### □ 유망 콘텐츠

- (시장 동향) '24년 디지털콘텐츠 시장 53% 성장, 특히 한류가 성숙기에 접어들며 K-Pop의 인기가 웹툰·게임 등으로 빠르게 확장하여 한국 콘텐츠 다변화 기회
- (유망 분야) △ 웹툰·웹소설·게임 등 신규 분야 공략 및 콘텐츠 2차 활용 활성화, △ 애니메이션 및 교육용 콘텐츠, △ K-콘텐츠 IP 상품화를 통한 굿즈 판매 확대

## 첨부 1

# 수출 유망 품목(상품)



## 식품(면류·김·커피 등)

- |             |   |
|-------------|---|
| <b>선정사유</b> | • 한류 확산 속 한국산에 대한 인지도 지속 상승 및 전체 시장 규모 우상향 추세         |
| <b>경쟁동향</b> | • 면류·김·커피·소스류 등에서 한국 제품 인지도 뚜렷, 유사 중국·베트남·튀르키예 제품과 경쟁 |
| <b>진출방안</b> | • 기존 인기 제품 기반의 신제품 출시, SNS 바이럴 마케팅으로 한류-마케팅 믹스 전략     |

## 반려동물사료

- |             |   |
|-------------|---|
| <b>선정사유</b> | • 반려묘 4,900만 마리, 반려견 2,600만 마리의 거대 시장, 인구의 56%가 반려동물 키우는 문화     |
| <b>경쟁동향</b> | • 글로벌 브랜드(Orijen, Monge, Farmina) 공급 감소 속 틈새시장 발생, 한국산 진입 초기 단계 |
| <b>진출방안</b> | • 오프라인 유통망 우선 공략, 성분 중시 소비 특성으로 성분표시와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에 투자           |

## 아이스크림(빙과류)

- |             |   |
|-------------|---|
| <b>선정사유</b> | • 간식·디저트 소비 확대, K-디저트에 대한 호기심 증가청년층 중심 수요 성장                |
| <b>경쟁동향</b> | • 러시아 전통 브랜드 시장 장악, 글로벌 브랜드(Nestle, Inspire Brand) 시장 참여 지속 |
| <b>진출방안</b> | • ‘바’ 형태보다 ‘와플 콘’ 형태가 인기, 가격경쟁력 확보 위한 현지 생산 및 콜드체인 비용 절감 필요 |

## 화장품

- |             |  |
|-------------|--|
| <b>선정사유</b> | • 시장 내 한국산 인지도 최고 수준이며, 기능성 및 성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확산          |
| <b>경쟁동향</b> | • 일부 글로벌 브랜드 공급 감소 속 한국 기업 간 경쟁 과열 양상, 러시아 기업도 현지 생산 본격화 |
| <b>진출방안</b> | • SNS 및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과 함께, 시장 규모 큰 색조 화장품·향수류 등으로 품목 다변화  |

## 고급생활용품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방 제품 존재하나 유럽산을 대체할 중·고급 제품 수요 존재, 기술력과 브랜드 갖춘 한국산 유망</li> </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럽 브랜드 일부가 프리미엄 시장 점유율 확보, 중국산 제품은 저가 시장 위주로 판매 활발</li> </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격 경쟁력을 갖춘 프리미엄 브랜드로 포지셔닝, 고급 백화점 등 유통망 활용한 판촉 마케팅</li> </ul>    |

## 의료기기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기기 강국 독일·일본산 공급 감소 속 국민 보건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시장 규모 성장</li> </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품목별로 기존 독일 일본산이 한국·중국산과 경쟁, X-ray 등 영상기기류 한국산 인지도 높은 편</li> </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확실한 AS 제공으로 시장 내 신뢰도 확보, K-Beauty 연계 마케팅으로 엔드유저 인지도 확보</li> </ul> |

## 의약품·건강기능식품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높은 수입의존도 및 국민 보건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시장 규모 성장</li> </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독일산 공급 감소 속 러시아 정부 지원을 받는 러시아 기업들의 자체 생산 노력</li> </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등록 제품 및 공급 부족 예상 품목(심혈관 관련 제품 등) 집중 타깃, K-Beauty 연계 건강기능식품 마케팅</li> </ul> |

## 중고차(2,000cc 이하)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제조사 철수 및 경기 둔화로 신차 공급 감소 속 중고차 수요는 비교적 유지, '25년 상반기 한국산 수출 급증</li> </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적으로 일본산의 비중이 매우 높으나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중국 신차 공급 증가로 향후 2~3년 내 중국산 중고차 매출 급증할 전망</li> </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독일산 공급 끊긴 딜러사 공략, 생산 거점의 중앙아시아 이전 속 중앙아시아 시장 연계 진출</li> </ul>                        |

### 자동차 부품(단, HS 8708.99는 상황허가 대상)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신차 공급 감소 속 AS 부품에 대한 수요 뚜렷, 러시아 현지 생산화 정책에 따른 신규 부품 수요 증가</li></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중국산 제품의 시장 검증 시기, 인도·이란산 제품 일부 진출 속 한국·일본산 공급 지속</li></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HS Code 기준으로 제재가 아닌 제동장치·서스펜션·스티어링 휠 등 부품 공략, 가격대별 제품군 다양화</li></ul> |

### 생산 자동화 설비·기계류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주도 생산 자동화 적극 추진, 러시아 스마트 제조 시장은 AI 발전 전략과 함께 '30년까지 두 배로 성장 전망'</li></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자동화 장비는 현재까지 독일 등 서방 기계 의존도가 높으며, 일반 기계의 경우 점차 중국산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나 한국산 수출도 증가</li></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거점도시 및 EAEU 내 타국도 공략해 리스크 분산, 러시아 기업과 합작·현지 생산</li></ul>                         |

## 첨부 2

#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 콘텐츠

- |             |  |
|-------------|--|
| <b>선정사유</b> | • 글로벌 OTT 철수 속 러시아 내 대체수요 다대, 한류 확산 속 K-콘텐츠 인지도 안정적, 최근 웹툰·도서 분야로도 수요증 관심 확장 |
| <b>경쟁동향</b> | • K-콘텐츠 인기 속 러시아 자체 콘텐츠 생산 노력, OTT 내 튜르키예 콘텐츠 주류로 부상                         |
| <b>진출방안</b> | • 3대 플랫폼, Yandex 등 플랫폼 보유 유통망에 정식 수출, 게임·웹툰 등으로 분야 다변화                       |

## 의료관광

- |             |   |
|-------------|---|
| <b>선정사유</b> | • 한국산 의료기기·의료서비스에 대한 높은 인지도로 과거부터 CIS 국가의 의료관광 활발, 러-우 사태 불구 양국 간 무비자 입국 가능 |
| <b>경쟁동향</b> | • 유럽행 수요 감소 속 일부 중국행으로 수요 이동됐으나, 러시아 자국 의료 서비스 개선 노력                        |
| <b>진출방안</b> | • 러-우 사태 종식 대비 러시아인 대상 의료서비스 프로세스 점검·구축, 핵심 분야인 성형·미용 분야에서 인지도 유지           |

## 관광

- |             |  |
|-------------|--|
| <b>선정사유</b> | • 한국 방문 러시아 관광객 수 증가세, 러-우 사태 불구 양국 간 무비자 입국 가능          |
| <b>경쟁동향</b> | • '24년 러시아인 인기 관광지는 튜르키예, 카자흐스탄, 중국, UAE, 조지아, 이집트, 태국 순 |
| <b>진출방안</b> | • 한류 고공행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였으므로 콘텐츠와 연계한 상품 개발, 비제재 문화교류 확대    |

## 건설 프로젝트

- |             |  |
|-------------|--|
| <b>선정사유</b> | • 건설업 경기는 고금리 지속, 산업경기 둔화로 '24년 대비 둔화되었으나, 지방 신도시 건설 및 정부 투자 인프라 건설 활발하여 수요 지속 |
| <b>경쟁동향</b> | • 러시아·중국 기업 중심으로 프로젝트 수주, 한국·유럽 기업은 중간재 조달 또는 하청 수주                            |
| <b>진출방안</b> | • 기술력이 요구되는 플랜트 프로젝트 타깃, 엔지니어링(Engineering : 설계·감리) 위주 수주 검토                   |

### 첨부 3

##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 '26년 러시아 지역 KOTRA 주요사업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해외 전시회	Intercharm 한국관	10월/모스크바
	Russian Healthcare Week 한국관	12월/모스크바
수출 상담회	Intercharm Professional 연계 K-Beauty Forum·Partnering	4월/모스크바
	Licensing Summit 연계 K-Content Road Show	9월/모스크바
	Siberian Food Week 연계 수출상담회	11월/노보시비르스크
	수출 중단 초보기업 화상상담회	연중/온라인
판촉 마케팅	K-Goods Road Show	6월/모스크바
	극동러시아 주력 유통망 K-소비자 판촉전	8월/블라디보스토크
	K-Festival 연계 K-소비자 판촉전	10월/블라디보스토크
	K-street 팝업스토어 in 상트페테르부르크	상반기/상트페테르부르크
	K-wave 축제 연계 한식 대전	하반기/상트페테르부르크
유통망 입점	러시아 주요 유통망 입점 지원	연중/러시아 전 무역관
	경북·전북 내수/수출초보기업 극동 러시아 유통망 입점·판촉 지원	2~10월/블라디보스토크
파트너 발굴	AI·실거래데이터 활용 바이어 발굴	연중/온라인
	서비스 산업 러시아 진출 지원 사업	연중/모스크바

## 첨부 4

#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원 선거	9월 18~20일	예정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6월 3~6일	러시아 대통령 참석(잠정)
동방경제포럼(EEF)	9월	러시아 대통령 참석(잠정)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Prodexpo(식품 전시회)	2월 9~12일	모스크바
Neftegaz(석유·가스 전시회)	3월 2~5일	모스크바
Promtech Expo(산업 종합 전시회)	3월 24~25일	옴스크
MosBuild9(건축자재·기술 전시회)	3월 31일~4월 3일	모스크바
InterCHARM Professional(B2B 뷰티 전시회)	4월 7~8일	모스크바
Expo Electronica(전자부품·기술 전시회)	4월 14~16일	모스크바
Siberian Transport Forum(교통 포럼·전시회)	5월 20~23일	노보시비尔斯크
Innoprom(산업 종합 전시회)	7월 6~9일	예카테린부르크
MIMS Automobility(자동차·부품 전시회)	8월 25~28일	상트페테르부르크
Licensing Summit(라이센싱 전시회)	9월	모스크바
CeMAT Russia(물류산업 전시회)	9월	모스크바
Dental Expo(치과산업 전시회)	9월	모스크바
InterCHARM(화장품 전시회)	10월	모스크바
Russian Health Care Week(의료산업 전시회)	12월	모스크바

##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정의한	과장	모스크바무역관	070-7954-5706	justice1@kotra.or.kr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26

# 러시아 진출전략



ISBN : 979-11-402-1518-8 (95320)